

『新增東國輿地勝覽』과 『輿地圖書』의 邑史 資料 비교 · 활용*

- 전라도를 중심으로 -

김태웅**

-
- | | |
|-------------------|--------------------|
| 1. 머리말 | 4. 邑史 資料로써의 활용 가능성 |
| 2. 邑史 資料로서의 가치 | 5. 맺음말 |
| 3. 구성상 특징과 내용상 경향 | |
-

초록: 『新增東國輿地勝覽』은 記文 · 題詠 등을 여타 항목과 함께 유의한 반면에 『輿地圖書』는 『세종실록지리지』를 전범으로 삼아 통치자료[治道] 차원에서 方里, 賦稅, 堤堰을 비롯한 각종 정보 항목에 유의하였다. 이에 전자는 문화 기술에 치우쳤음에도 불구하고 기문과 제영에서 볼 수 있듯이 고을의 내력, 건물의 배치와 규모, 고을 재지세력의 활동 및 기층 문화의 제반 사정 등을 담음으로써 고을의 역사 즉 邑史를 풍부하게 서술하는 데 도움이 될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반면에 후자는 국가의 통치 필요상 중앙의 관심사를 투영한 제반 정보의 종합여지 편찬에 초점을 둔 나머지 전자에 비해 고을 자체의 재래적인 내력과 사정들을 덜 담고 있다. 다만 『여지도서』 경상도의 경우에서 볼 수 있듯이 지방 사족과 중앙의 길항 관계에 따라 제영과 기문이 포함된 까닭에 읍사가 좀더 풍부해 질 여지가 있다.

따라서 『신증동국여지승람』과 『여지도서』의 이러한 相補的인 關係를 인식하여 교차적으로 검토하고 정밀하게 비교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로써 이를 여지류는 지방인물사는 물론 지방사회의 변동을 비롯하여 기층문화의 특징 등을 해명하는 데 유용한 자료로 거듭날 것이다.

핵심어 : 여지류, 읍지, 지방사연구, 기문, 제영

* 이 논문은 2014년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학중앙연구원(한국학진흥사업단)의 한국학기초 자료사업의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AKS-2014-CDM-1240002).

** 서울대학교 사법대학 역사교육과 교수.

1. 머리말

한국 전근대 지방사 연구는 자료의 빈곤으로 많은 제약을 받고 있다. 그것은 오랜 중앙집권체제의 전통으로 인해 서구·일본과 달리 지방자료가 중앙에 수렴되거나 잊은 전쟁으로 산일되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지방사 연구가 중앙에서 편찬한 연대기 자료에 크게 의존하여 진행된 결과 민인과 직접 연결되는 지방 하부통치체제, 향촌사회의 변동, 지방의 인물, 지방민의 신앙과 풍속 등에 대한 연구는 중앙의 역사와 연계하여 해명되는 가운데 지방 개별의 역사는 소량의 지방관아 문서와 문중의 사문서, 개인문집 등에 근거하여 부분적으로 구명되었을 뿐이다. 단적으로 오늘날 개별 지방자치단체에서 편찬한 지방지와 역사책이 근현대사에 편중되어 있는 실태가 이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따라서 지방 자료의 이러한 빈곤 속에서 관련 자료를 지속적으로 발굴해야 할뿐더러 지방의 역사를 그나마 담고 있는 輿地類에 대한 검토가 더욱 진척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¹⁾

그러나 여지류 역시 여타 지방 자료의 사정과 마찬가지로 특정 시기 지방의 제반 사정을 파악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며 시계열적인 의미를 부여하기에는 더더욱 어렵다.²⁾ 그 이유는 여지류의 편찬 배경과 경위, 성격 등이 다양할 뿐더러 이른바 전국지리지든 개별 읍지든 형식과 체제에 비견할 만큼 내용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이 수반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체제는 물론 내용 분석을 통해 동일 지역

- 1) 여지류에 대한 기준의 대표적인 연구 성과는 다음과 같다. 양보경, 1987『조선시대 읍지의 성격과 지리적 인식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지리학과 ; 서인원, 2002『조선초기 지리지 연구-『동국여지승람』을 중심으로』, 혜안. 그 밖에 개별적인 여지는 아니지만 이러한 여지류와 밀접한 紀傳體 史書의 지리지에 대한 연구로는 윤경진, 2012『고려사 지리지의 분석과 보정』, 여유당 참조. 그 밖에 읍지와 지도 활용에 관해서는 장동표, 2008『읍지와 지도를 통한 지방사 이해』, 『지방사연구입문』(역사문화학회 엮음), 민속원 참조.
- 2) 『증보문헌비고』 구성에 따르면 20考 가운데 輿地考가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고 두 번째의 考로 설정되어 있다. 그러나 개별 고을의 역사를 연구하기에는 소량한 편이다. 輿地考에 관해서는 정구복, 2008『『문헌비고』의 자료적 성격과 사학사적 의미』, 『진단학보』 106, 175면 참조.

내 시점을 달리하는 읍지와 읍지 사이의 관계, 전국지리지와 개별 읍지의 연계, 시점을 달리하는 全國地理誌의 상호 관계 등을 검토하는 작업이 절실하다. 이에 이러한 작업의 단서를 열기 위한 試掘로서 15세기 말에서 16세기 초반에 걸쳐 편찬된 『新增東國輿地勝覽』과 함께 미처 완성을 보지 못했지만 18세기에 편찬된 『輿地圖書』를 상호 비교 분석하여 해당 자료가 지방사료로서 지니는 가치를 추출할뿐더러 이 기간에 고을별로 일어난 향촌사회의 변화 양상을 탐색할 필요가 있다.

물론 학계에서는 해당 자료에 대한 심층적인 검토가 間斷없이 이루어져 왔다. 이들 여지류의 각 조항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田稅를 비롯한 賦稅 항목, 宮室 항목, 教化와 관련된 충신, 효자, 열녀 항목, 성씨 항목, 문학작품에 대한 소개 등이 수반되었다.³⁾ 나아가 이들 여지류 자체에 초점을 맞추어 편찬 배경과 경위, 성격 등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졌다.⁴⁾ 또한 고려시기 지방세력연구와 기층문화 연구에서 이들

- 3) 역사연구소 고대 및 중세사연구실, 1959 「자료 : 『신증동국여지승람』에 수록된 산물 일람 표」, 『역사과학』 1660001 ; 이태진, 1976 「15세기 후반기의 「鉅族」과 名族意識 -「동국여지승람」 인물조의 분석을 통하여」, 『한국사론』 3 ; 전형택, 1981 「『동국여지승람』 전라도 인물조의 분석을 통해 본 조선초기 지배세력」, 『역사학연구』 10 ; 김현룡, 1984 「동국여지승람의 설화 연구」, 『인문과학논총』 16 ; 이강근, 1989 「『동국여지승람』과 조선전기까지의 건축(1)」, 『강좌미술사』 2 ; 김동국, 1995 「조선전기 지방도시 내 누정의 형성과정과 건축 특성」, 『경기대학교 논문집』 37 ; 유재춘, 1996 「조선전기 성곽 연구-『신증동국여지승람』의 기록을 중심으로」, 『군사』 33 ; 이기봉, 2003 「조선시대 전국지리지의 생산적 항목에 대한 검토」, 『문화역사지리』 21 ; 김우철, 2006 「『여지도서』·『성씨』조의 검토」, 『한국사학보』 25 ; 문용식, 2006 「『여지도서』를 통해 본 18세기 조선의 환곡 운영 실태」, 『한국사학보』 25 ; 서종태, 2006 「『여지도서』의 물산 조항연구」, 『한국사학보』 25 ; 이상식, 2006 「『여지도서』를 통해 본 지방행정 체계의 구성 및 운영원리 - 충청도 지역을 중심으로-」, 『한국사학보』 25 ; 이철성, 2006 「『여지도서』에 나타난 전결세 항목의 텍스트적 이해」, 『한국사학보』 25 ; 김우철, 2010 「『여지도서』를 통해 본 조선후기 전라도의 改貫 실태」, 『전북사학』 37 ; 허원영, 2011 「18세기 중엽 조선의 호구와 전결의 지역적 분포-『여지도서』의 호구 및 전결 기록 분석-」, 『사림』 38 ; 소순규, 2014 「『신증동국여지승람』 토산 항목의 구성과 특징」, 『동방학지』 165 ; 이재우, 2015 「『신증동국여지승람』에 반영된 효 인식」, 『영남학』 28.
- 4) 이태진, 1979 「『동국여지승람』 편찬의 역사적 성격」, 『진단학보』 46 ; 변주승, 2006 「『여지도서』의 성격과 道別 특성」, 『한국사학보』 25 ; 정재영, 2016 「영조연간 전국지리지 『여지도서』의 서지적 연구」, 『서지학연구』 68 ; 이재우, 2017 「『현산지』에 실린 『여지도서』의

여지류가 활용되었다. 그러나 이 역시 자신의 일반적인 주제에 맞추어 이들 여지류에서 관련 자료가 개별적으로 추출되어 단편적으로 활용되었을 뿐이다. 그리하여 기존의 작업에서는 이들 여지류를 상호 연계하여 비교하는 방식을 통한 사료비판 단계에는 이르지 못하였다. 사료 비판은 주지하다시피 사료의 진위 여부 등을 가리는 ‘진실성의 비판’에 그치지 않고 해당 사료의 제작연대, 장소 및 작자에 대한 정밀한 음미를 행하는 ‘내력 비판’, 해당 사료가 원본인가, 또는 기타의 사료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인가를 분석하고 해부하는 ‘본원성의 비판’ 등을 통해 사료의 신뢰도를 높이고 활용 비중을 늘리는 데 기여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적지 않다.⁵⁾ 이때 歷史的 變動性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내용이 서로 관계가 있는 자료이지만 원천을 달리하는 자료를 상호 비교하는 방법이 불가결하다.⁶⁾

이 글은 이런 제반 문제를 염두에 두고 이들 여지류를 지리지라는 범주에 국한시키지 않고 邑史 稱述의 기초 자료로 간주하여 지방사료로서의 가능성과 활용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다만 이 논문에서 주된 검토 대상이라 할 『신증동국여지승람』과 『여지도서』가 거칠이기 때문에 전국 군현 전체에 걸치지 못하고 전라도에 국한하여 다루었다. 또한 기술 조항이 경상도와 달리 중앙의 지침을 수용하여 여타 도의 체제와 유사한 점도 감안하였다.⁷⁾ 그 밖에 전라도 일대가 과거 백제, 통일신라, 고려, 조선 시기의 영역이어서 그 변화의 폭이 여타 도보다 크다는 점도 전라도를 사례로 삼는 데 참고가 되었다. 따라서 추후 작업 대상이 전국 군현으로 확장하여 소기대로 이루어진다면 조선 전기에서 후기에 걸쳐 향촌사회의 변화 양상을 국가의 지방파악방식에서 벗어나 지방 독자의 역사적·문화적 맥락에서 구명하는데 실마리를 제공하리라 본다. 다만 이 작업이 전라도를 개별 사례로 삼아 분석하였기 때문에 이들 여지류의 종합적인 성격은 후속 작업을 통해서야 드러나리라 본다.

목차와 편찬 규정, 『영남학』 60.

5) 박성수, 1977 『역사학개론』, 삼영사, 263-270면 : 『두산백과사전』, 표제 ‘사료비판’.

6) 杜維運(權重達譯), 1984 『增補新版 歷史學研究方法論』, 一潮閣, 94-102면.

7) 변주승, 앞의 논문, 447-457면.

2. 輿地類에 담긴 邑史로서의 가치

『동국여지승람』(이하 『승람』으로 줄임)은 盧思慎이 箋에서 밝힌 대로 각 고을의 읍지에 근간하여 편찬하였다. 『여지도서』는 『승람』과 달리 완성되지 못하였지만 이 역시 각읍에서 상송한 읍지에 근간하였다.⁸⁾ 그리하여 『여지도서』 편찬에 참여한 洪亮漢은 “列邑의 邑誌는 바로 輿圖의 근본”이라고 역설하였다.⁹⁾ 이 점에서 이 두 편찬물은 개별 읍지를 모아 집성한 것이며 그 본성은 읍지에서 연원한다고 하겠다.

그런데 읍지는 중국식으로 논하면 方志의 기본 특성을 가지고 있다. 즉 방지는 한 지역의 자연, 경제, 역사, 문화, 인물, 풍속, 재해, 문예 등을 종합적으로 기술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대부분 행정구역 단위로 이뤄져 있다. 다만 산과 강 등을 단위로 삼기도 한다.¹⁰⁾ 하지만 이러한 ‘誌’, ‘志’라는 용어에서 알 수 있듯이 이것이 ‘史實과 史傳을 써서 남겨둠’을 지칭한다는 점에서 이들 읍지는 산천, 경계, 영역 등을 기술한 지리지이면서도 지방의 역사를 기록한 역사책이기도 하였다.¹¹⁾ 즉 國史가 나라의 내력과 이 땅 주민의 역사이듯이 지방사는 해당 지방의 내력과 그 땅에 살아온 주민의 역사인데 서술의 단위가 고을이므로 일종의 邑史인 것이다.¹²⁾

8) 배우성, 1998 『조선후기 국토관과 천하관의 변화』, 일지사, 125-145면 : 변주승, 앞의 논문.

9) 『비변사등록』 133책, 영조 3년 8월 10일. 이하 연대기 자료와 일부 문집은 국사편찬위원회와 한국고전번역원의 번역본에 의거하였다. 또한 『여지도서』는 변주승 외, 2009 『국역여지도서』, 호름에 의거하였다.

10) 倉修良, 1990 『方志學通論』, 齊魯書社, 447면.

11) 『大漢和辭典』 권10, 467면. 이와 관련하여 졸고, 2008 「해방 이후 지방지 편찬의 추이와 시기별 특징」, 『한국 민중사의 새로운 모색과 역사쓰기』(역사학연구소 엮음), 선인, 184면 참조.

12) 역대 문헌에서 ‘邑史’라는 용어는 보이지 않는다. 다만 1917년 일제하 경상남도에서 경남 동남부 지역의 읍지를 요약한 뒤 제목을 『慶尙南道東南部主要地邑史抄』(동국대학교 도서관 소장)라고 명명하였다. 따라서 ‘읍사’라는 용어가 부적절할 수 있다. 그러나 전근대에는 지리와 역사가 결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誌 자체가 당시의 지세, 산천 등을 記載한다

그리하여 늘 읍지 편찬을 둘러싸고 논란이 야기되었지만 기본 원칙은 역사서 편찬과 마찬가지로 고장에서 인망이 있는 사람이 사실에 의거하여 꾸밈없이 써서 터럭만큼의 사사로움이 용납되지 않는 읍지를 편찬하는 것이다.¹³⁾ 또한 읍지는 直筆이 내용의 신뢰도를 결정하는 관건이어서 여기에 실린 기술 내용은 ‘事實’로 인정받았다.¹⁴⁾ 반대로 읍지가 소략할 경우에는 다시 편찬하여 증보하기도 하였다.¹⁵⁾ 정조 3년(1779)에 편찬된 『南漢誌』는 이런 사정으로 증보 개정되었다.¹⁶⁾ 그 만큼 읍지는 고을의 강역, 과거의 사실, 제도를 證驗하는 데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또한 임진왜란이 일어난 지 400년이 거의 되는 시점에 의병장을 증직할 때 주요 근거가 읍지였다.¹⁷⁾

우선 『신증동국여지승람』(이하 『신증승람』으로 줄임)과 『여지도서』에 실린 기사의 대부분은 『고려사』, 『고려사절요』, 『국조보감』 등 정사에 입각하여 서술되었다. 예컨대 『여지승람』 전라도 무장현 명환조에 실린 廉祿崇(1035~1114)의 경우, 『고려사』 열전에 근거하였다. 당시 편찬자들이 구전을 참조하면서도 기본 자료는 정史에서 추출하고자 노력하였던 것이다.

심지어는 국가가 세워준 旌閭碑文도 가능한 한 활용하고자 하였다. 『여지도서』 장성부 효자조에 실린 徐稜의 경우, 『고려사』에 근거한 『세종실록지리지』를 인용하여 그의 효도 행위를 기술하면서 이후 작성된 정려비문을 참조하여 보충하기도 하였다.

그러면 『승람』과 『여지도서』를 편찬한 조정은 어떤 의도에서 이러한 기사를 남기려 했을까.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오늘날 기록학에서 논의하는 보

는 뜻을 지니고 있음은 물론 사건, 인물, 제도 등을 記錄한다는 뜻도 지니고 있다는 점에 서 읍지는 역사책으로서의 성격을 다분히 가지고 있다고 하겠다.

13) 『大山集』(李象靖) 권52, 행장, ‘영릉 참봉 만산 김공행장’.

14) 『剛齋集』(宋穉圭) 권5, 序, 久菴 事實序 ; 『響山集』(李晚燦, 1842~1910), 권13, 묘갈명, 우후 박공 묘갈명 병서.

15) 『弘齋全書』 권183, 群書標記 5, 命撰 1.

16) 『승정원일기』, 정조 3년 8월 24일.

17) 『정조실록』 권17, 정조 8년 윤3월 계미.

존기록물의 가치 개념을 적용하기에는 난점이 있을 수 있으나 일찍부터 기록의 가치를 인식하고 기록 정리와 보존에 만전을 기했던 중앙집권국가로서는 특정 목적을 가지고 이러한 기록들을 보존하고 전승했다는 점은 오늘날과 커다란 차이가 없으리라 본다.

우선 이들 기록의 행정적 가치이다. 장기간 업무 지침 또는 참고 자료로 업무 처리에 빈번하게 활용되는 기록물의 가치이다.

조선 국가는 『승람』이든 『여지도서』든 이러한 여지류의 근간인 각종 읍지에 수록된 여러 정보 조항을 정부가 시책을 펼치거나 행정을 수행하는데 적극 활용하였다. 『北關志』의 경우, 순조 연간 『萬機要覽』 함경도 관방조를 기술할 때 적극 활용하였다.¹⁸⁾ 또 『三綱行實傳』을 편찬할 때 『여지승람』을 중요 근거로 활용하였다.¹⁹⁾

이들 여지류는 祈雨祭 장소의 근거를 제공하였으니 장소는 『승람』을 보고 비를 빌어 응답이 있는 곳으로 선정되었다. 그리하여 조정에서는 『승람』의 기우제 장소 명부를 팔도관찰사에게 하달하였다.²⁰⁾ 읍지의 경우도 기우제 장소의 중요한 근거였다. 李象靖(1711~1781)이 경상도 연일현감 재직시 가뭄 때문에 미리 기우제를 지낼 장소를 물색하였다. 이 때 적합한 장소로 三僧巖을 선정하였는데 그 근거는 읍지에 그 곳이 가장 영험하여 비를 기도하면 번번이 응힘이 있다고 하였기 때문이다.²¹⁾ 심지어는 기우제 장소가 『국조오례의』 등의 祀典에 등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여지도서』에 과거의 신이한 일로 영험한 곳이라고 기술되어 있으면 모두 기우제를 지내게 했다.²²⁾ 또한 사전의 의례에도 『오례의』와 함께 『여지승람』을 보고 祭品, 儀節, 壇壝와 方所를 확인하였다.²³⁾

건물의 중건 내력을 파악하는 데도 읍지가 중요 근거가 되었다. 예컨대 남한산

18) 『만기요람』 권정편 4, 관방, 함경도.

19) 『광해군일기』 권97, 광해 7년 11월 계미.

20) 『중종실록』 권59, 중종 22년 5월 을사 : 『중종실록』 권70, 중종 26년 5월 경자 ; 『중종실록』 권73, 중종 27년 5월 무신.

21) 『大山集』(李象靖) 권46, 축문, '삼승암기우문'.

22) 『중종실록』 권91, 중종 34년 6월 무신.

23) 『정조실록』 권46, 정조 21년 윤6월 기해.

성의 枕戈亭이 백제 온조왕에 의해 건립되었다는 근거가 광주부읍지에 있었다.²⁴⁾ 또한 단군묘소를 비정할 때에도 믿을 만한 증거의 흔적이 없으나 읍지를 참고하여 묘소를 비정하고 수리하였다.²⁵⁾ 이후에도 사정은 마찬가지였다.²⁶⁾ 심지어는 19세기에 들어와서도 이들 여지류는 중요한 근거 자료로 활용되었다. 예컨대 1899년 황실이 자신의 족보라 할 『璿源譜略』을 편찬할 때 읍지와 『여지승람』을 가져다 詳考하였다.²⁷⁾

고을 경계를 확정할 때에도 읍지는 두루 활용되었다. 중앙정부는 『강계읍지』를 통해 여연과 강계 사이의 지역인 자작리에 읍치를 두어 강계의 관할이 되게 했음을 확인하였다.²⁸⁾ 그리고 호구 상황을 파악할 때 장적에 못지 않게 읍지도 중요 근거로 활용하였다.²⁹⁾ 또 潛倉의 내력을 조사할 때 반드시 『승람』을 참고하였다. 전라도 용안의 득성창의 경우, 세종 10년(1428) 물길이 막혀 함열의 덕성창으로 옮겼다가 성종 18년(1487)에 되돌아왔음을 참고하였다.³⁰⁾ 그 밖에 고려 때 白頤正이 처음으로 정주학을 들여왔다는 기사를 『남포읍지』와 『신증동국여지승람』 남포 현에서 찾아 금령으로 훼철된 주자서원을 세울 때 백이정을 배향하고자 하였다.³¹⁾ 물론 백이정의 정주학 도입 기사는 『고려사』 열전에 이미 보인다. 그러나 당시 수령으로서는 급히 읍지를 참고하여 배향할 만큼 읍지에 대한 신뢰도가 높았다. 심지어는 조선 중종 14년(1519)에 고려 시기 해주 출신의 崔沖을 향교에 배향하는

24) 『정조실록』 권8, 정조 3년 8월 경신.

25) 『정조실록』 권22, 정조 10년 8월 기유.

26) 『승정원일기』, 고종 36년 12월 29일.

27) 『고종실록』 권39, 고종 36년 5월 24일.

28) 『정조실록』 권38, 정조 17년 12월 갑술.

29) 『정조실록』 권49, 정조 22년 9월 신유.

30) 『정조실록』 권30, 정조 14년 7월 경인.

31) 『무명자집』(윤기, 1741~1826) 문고 4책. “白頤正 白文節의 아들이다. 타고난 자질이 純一重厚하여 재상의 器局이 있었는데, 여러 관직을 거쳐 勦議評理商議都監事에 이르고 上黨君에 봉해졌다. 당시 程朱의 학문이 비로소 중국에 행해지고 아직 동방에는 미치지 않았었는데, 이정이 원 나라에 있으면서 이를 업어 배우고 돌아오자, 李齊賢과 朴忠佐가 맨 먼저 스승으로 섭겨 그의 학문을 받았다.”(『신증동국여지승람』 충청도 남포현).

관례를 둘러싸고 논란을 빚을 때 해주 주민들의 의향에 따라 祠宇를 세우도록 허락하였다. 이 사정을 『중종실록』에는 『승람』 개성부 고적조의 최충 관련 기사가 수록되어 있다.³²⁾ 해주 주민들의 여론도 중요했지만 『승람』의 기사가 중요한 근거를 제공했음을 보여준다.

그리하여 이러한 여지류에 기술되지 않으면 훗날 행정적인 제재를 받고 삭제되거나 철거되기도 하였다. 예컨대 『여지승람』에 실리지 아니한 사찰은 모두 헐어버렸다.³³⁾ 또한 여지류는 산천의 위치와 줄기 등을 기재하고 있어 전국의 산은 『여지승람』에 등재되어 있다고 판단할 정도였다.³⁴⁾ 그리고 牧場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근거로 활용되기도 하였다. 예컨대 일반 민인과 사복시를 비롯한 관아가 대립할 경우, 『여지도서』가 중요 입증자료가 되었다.³⁵⁾ 심지어는 왕실과 신료가 宮房田을 둘러싼 논쟁에서 이들 여지류는 중요한 근거를 제공하였다. 예컨대 숙종 10년(1684)에 인천의 大池堤를 둘러싸고 백성과 궁방이 다투다가 국왕과 신료의 논쟁으로 비약하였고 『여지승람』에는 백성의 무리가 방죽을 쌓아 蒙利하는 땅이라고 기재됨으로써 신료측의 주장이 관철되어 해당 토지가 궁방 折受地에서 벗어났다.³⁶⁾ 그리하여 『승람』과 圖籍에 수록된 기술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승람』을 원본으로 인정하였다. 그것은 “『여지승람』은 국가에서 수백 년 동안 영구히 전해야 할 典籍이지만 圖籍은 곧 사복시에서 兵亂 뒤에 한때의 들은 바를 기록한 문서”이기 때문이다.

나아가 이들 여지류는 외교상 분쟁 거리에 대처하거나 자국의 영토임을 입증하는 중요한 행정적 근거를 제공하였다. 임진왜란 시 부산포 倭戶가 임란 직전에도 거주하였다는 명나라 측의 의혹 제기에 대해서 조선정부는 『승람』을 근거로 삼포왜변 이후 모두 쫓겨났음을 주장하였다.³⁷⁾ 또 울릉도 영유권을 둘러싸고 일본과

32) 『중종실록』 권35, 중종14년 1월 신축.

33) 『중종실록』 권88, 중종 33년 9월 병신 ; 『중종실록』 권89, 중종 34년 3월 임술.

34) 『영조실록』 권60, 영조 20년 10월 무진.

35) 『선조실록』 권216, 선조 40년 9월 신축 : 『광해군일기』 권10, 광해 즉위년 11월 임진 : 『숙종실록』 권39, 숙종 30년 5월 을축 : 『숙종실록』 권40, 숙종 30년 10월 신미.

36) 『숙종실록』 권40, 숙종 30년 10월 병자.

마찰을 빚을 때 방물을 거두고 島民을 조사 정리하여 울릉도가 우리나라에 소속되어 있다는 『여지도서』의 기사를 들어 우리 영토임을 주장하였다.³⁸⁾ 왜냐하면 지형의 廣狹, 주민의 遺址, 土產物이 모두 『여지승람』에 실려 있기 때문이다.³⁹⁾

다음 이들 기록의 증빙적 가치이다. 토지·건물·물건·개인·문중 등의 신분상 또는 재산상 매우 중요한 사항을 확인하거나 증명하는 기록물의 가치이다.

후손이 선조의 증직을 요청할 때 정부는 해당 읍지에 근거하여 증직 여부를 결정하였다. 예컨대 정조 17년(1793) 선조가 임진왜란 파천할 때 御廚를 마련해 준 金厚孫의 공적을 기려 비석을 세울 때 읍지가 중요 근거가 되었다.⁴⁰⁾ 심지어 거창 향리 慎氏들이 이인좌난 때 환난을 막았다는 이유로 제사를 지내게 할 중요 근거가 읍지였다.⁴¹⁾ 또한 시호를 내릴 때도 『국조보감』과 함께 중요한 근거가 되었다. 예컨대 임진왜란 당시 경주성 쌔움에서 공을 세운 朴毅長에게 정조 8년(1784) 2월 8일 시호를 내리는 근거의 하나가 『영해부읍지』였다.⁴²⁾ 물론 이 기사는 『여지도서』 인물조에도 실려 있었다. 그리고 효자로 인정받을 경우, 읍지도 중요한 근거였다. 조선 시기 卜僑은 『신증승람』 충청도 홍주목 효자조에 실려 六臣書院에 배향되었다.⁴³⁾ 또한 읍지에 실려 있다는 자체가 고을의 公論으로 인정받아 旌閭가 내려지기도 하였다. 예컨대 임실의 黃恁澄은 읍지에 효행으로 실려 정조 8년(1784)에 정려되었다.⁴⁴⁾ 그것은 오래 전의 일로 믿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읍지에 실려 있기 때문이다.⁴⁵⁾ 그 밖에 養山의 折授를 결정함에 읍지에 실린 지도를 상고할 것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관방의 중요한 땅이면 절수할 수 없기 때문이다.⁴⁶⁾ 賦牌地와 四標

37) 『선조실록』 권49, 선조 27년 3월 계사, 6월 병인, : 『선조실록』 권108, 선조 32년 1월 신묘.

38) 『광해군일기』 권82, 광해 6년 9월 신해.

39) 『숙종실록』 권27, 숙종 20년 8월 기유.

40) 『정조실록』 권37, 정조 17년 5월 임진.

41) 『연암집』 권1, 煙湘閣選本.

42) 『일성록』, 정조 8년 2월 8일.

43) 『신증동국여지승람』 권19, 충청도 홍주목 : 『강재집』 권5, 서, 구암 사설 서.

44) 『일성록』, 정조 8년 9월 30일.

45) 『일성록』, 정조 9년 4월 12일.

46) 『정조실록』 권23, 정조 10년 8월 병오.

의 경계를 확인할 때도 읍지를 근거로 삼았다.⁴⁷⁾ 물론 일각에서는 읍지를 한 고을의 ‘私錄’이라고 치부하기도 하였다.⁴⁸⁾ 그러나 정조는 “이미 읍지에 실려 있으니, 사록이라고 밀해서는 안 될 것이다. 과연 죽음을 결행하였고 죽는 것도 이처럼 자연스러웠으니, 100년 전의 舊券은 곧 百世의 公議라 할 수 있다”라고 하여 추후 조사를 하달하였다.⁴⁹⁾

그러나 읍지의 이러한 증거 능력 때문에 읍지 편찬을 둘러싼 논란이 적지 않았다. 심지어 자신의 문중에 불리하면 읍지 자체를 부정하는 언사들도 나오곤 하였다. 다음 기사는 안동 太師廟 神主 位置를 둘러싼 논란 와중에 안동김씨 金晳根이 올린 상소문의 일부 내용이다.

저 권 태사의 자손들은 公議를 생각하지 않고 한갓 저들의 조상에게 私情을 두려고 하였습니다. 이에 공으로 높일 수 없자 덕을 비교하고, 덕으로 높일 수 없자 마침내 이황의 記文에서 질문에 대답한 말 가운데 ‘主’字를 집어내어 主享과 主壁의 뜻으로 해석한 다음 저들의 조상에게 술을 먼저 봉는 잘못을 타당한 것이라고 망령되어 증명하면서 先儒의 定論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자기 조상을 높이기 위해서 이황이 취한 正史의 定論을 굳이 버렸으니 또한 이상하지 않습니까.

제사를 거꾸로 지내는 잘못에 대해서 전에 누차 분변하는 글을 올렸는데, 英廟 정해년(1767, 영조 43)에 이르러 하교를 받아 바로잡아 놓았습니다. 그런데 뜻밖에 오늘날 신주의 차례를 바꿔 놓은 邑誌가 권씨 가문에서 다시 나왔는데, 그 인물편에 벼젓이 권 태사를 유품으로 만들고 김 태사를 그 다음으로 만들어 놓고는 조금도 거리낌이 없습니다. 비록 선조를 위하는 데에 급급하였다 하더라도 연석의 하교를 공경스럽게 따라야 하는 의리를 어찌하여 유독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까. 신들이 처음에 읍지를 간행하려는 계획을 듣고는 누차 불가하다고 말했더니, 그들은 공공연하게 그럴 일이 없다고 하고는 몰래 사심을 이루었습니다. 인쇄한 책이 여기에 있으니 어찌 감히 속이겠습니까.

그들이 중요한 근거로 삼은 것은 오직 『東國輿地勝覽』이 있을 뿐인데, 단지 한마디 말로 그 허구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 『동국여지승람』은 우리나라 중엽에 지어진 것으로 태사가 살던 시대와는 600년이라는 차가 있고, 徐居正과 權吉昌이 실상 그 일을 주관하였는데 서거정은 권씨의 외손으로 권씨의 私言을 근본으로 서술하였습니다. 600년

47) 『승정원일기』, 고종 39년 8월 27일 : 고종 43년 12월 8일.

48) “聞其邑誌 則便是鄉之私錄”(『일성록』, 정조 9년 11월 8일).

49) “教以既載邑誌 不可以私錄言 而果然判死 死又如是雍容 則百年前舊券 便是可謂百世之公議”(『일성록』, 정조 9년 11월 8일).

뒤에 태어나 600년 전의 일을 논하면서 신빙성 있는 역사서를 버리고 무슨 책을 취한단 말입니까. 그리고 『東國通鑑』 역시 서거정이 명을 받들어 찬집한 것인데 거기에 실려 있는 세 분 태사의 位次가 한결같이 國史와 같이 되어 있으니, 어찌 한 사람의 저술이 한쪽에는 저렇고 다른 한쪽에는 이럴 리가 있단 말입니까. 이는 굳이 많이 분변하지 않아도 사당에서 권 태사가 가운데에 있는 위치를 참으로 옮겨서도 안 되고 내려서도 안 되는 이유가 됩니다. 이제 읍지에 권 태사를 유품으로 만들어 놓았으니, 하나의 위치인데 둘로 나누어서 사당에서는 가운데에 있고 읍지에서는 유품의 자리에 있는 경우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 일이 비록 개별적 가문 간의 시비이지만, 가령 저 읍지가 세상에 공공연하게 나뜰게 된다면 聖祖께서 연석에서 하교를 내리시어 바로 잡은 것이 이것과 섞여 유통됨으로써 장차 오래될수록 분변할 수 없게 되고 역대의 正史도 오래될수록 虛言이 될까 걱정되니, 신들의 사정만 높시 한탄스러울 뿐이 아닙니다. 이 읍지가 이미 간행된 이상 그 책에서 그 차서를 바로 잡는 것이 제일 좋을 것입니다. 이에 감히 함께 와서 성상께 호소합니다.⁵⁰⁾

이를 통해 『동국통감』에 근거하여 자신에 불리한 『승람』의 증거적 가치를 부인하면서 안동 권씨가 간행한 『안동읍지』의 배포를 막고자 함을 확인할 수 있다.

그래서 읍지에서 오류가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바로 시정하도록 조치를 취했다. 예컨대 중국에서 들어온 漢族 출신들이 거주하는 마을을 ‘向化村’으로 표기되어 있는 읍지의 내용을 바로 잡아 향화촌을 ‘皇朝人村’으로 바꾸도록 하였다.⁵¹⁾ 그러나 이런 사례가 많지 않다고 하여 고쳐지지 않았다.

『승람』과 『여지도서』를 비롯한 여지류는 이처럼 정부가 행정 시책을 폄거나 개인이나 문중이 자신들의 신분, 재산 등을 입증할 때 중요한 근거 자료였다. 그런데 이러한 근거 자료는 세월이 지나면 훗날 역사가들에게 중요한 사료로 활용되었다. 왜냐하면 이들 기록은 지방의 제도 연혁·변천사의 소재가 될 만한 역사적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고을의 昇降 記錄을 보여주는 建置 沿革도 당대에는 행정적 가치가 높은 기록이었으나 수백 년이 지나면 고을의 역사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료가 되었다. 그리하여 흥亡한은 이러한 읍지가 근래의 연혁을 고증하는 근거라고 언급하였다.⁵²⁾ 인물의 삶을 보여주는 내력을 조사할 때에도 이들 여지류

50) 『승정원일기』, 고종 38년 3월 25일.

51) 『일성록』, 정조 22년 9월 1일.

는 중요한 정보 자원이었다. 그것은 이들 자료가 단편적이지만 인물의 행적을 기술하고 있기 때문이다. 읍지는 족보와 함께 상고할 만한 것이 있던 셈이다.⁵³⁾ 예컨대 숙종대 南九萬(1629~1711)은 마전군수 南嶸(1548~1616)의 묘갈명을 저술하는데 함창의 읍지에 근거하였다.⁵⁴⁾ 그리고 안정복이 단종 복위 실패시 자결한 權山海(1403~1456)의 旌忠閣記를 저술함에 『용궁읍지』를 참조하였다.⁵⁵⁾ 그 밖에 역대 왕들은 자주 『동국여지승람』을 열람하면서 각종 유적과 건물의 내력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정조의 경우, 여주 신륵사의 또 다른 이름 報恩寺의 속칭이 璞寺임을 여기서 확인하였다.⁵⁶⁾ 특히 신륵사가 벽사로 불린 것은 고려 시기 경내의 동쪽 언덕에 벽돌로 된 다층 전탑이 세워졌기 때문이다.

이러한 저술 방식은 19세기에도 마찬가지였다. 『響山集』의 저자 李晚燾(1842~1910)도 묘갈명을 쓸 때는 書院案, 師友들의 기록은 물론 읍지를 참고하였다.⁵⁷⁾ 풍속의 유래를 찾을 때도 읍지를 중시하였다. 예컨대 李裕元은 신라 때 여자들이 머리 뒤에 결계한 이유를 『東京志』에서 찾아 北髻(쪽진 머리)의 유래를 고증하였다.⁵⁸⁾ 그 밖에 해당 지역에 유배당한 사람의 문학 작품을 읍지에 실어 그와 이 지역의 관계를 보여주기도 하였다.⁵⁹⁾ 그래서 편찬 당시부터 『三國史記』를 비롯한 역사서 외 『八道地理誌』·『訓民正音』·『東國正韻』·『東國文鑑』·『東文選』·『三韓龜鑑』·『承文贍錄』·『經國大典』·『京外戶籍』·『京外軍籍』과 諸道의 田籍·貢案·橫看, 그리고 諸司·諸邑의 奴婢에 대한 正案·續案 등과 함께 『승람』도 각각 4건씩 갖추게 하여 보관해 했다.⁶⁰⁾ 또 중앙 정부의 처지에서도 임란 이후 『고려사』, 『동

52) 『비변사등록』 133책, 영조 33년 8월 10일.

53) 『대산집』 권47, 碑.

54) 『藥泉集』 권26, 가승 : 『咸昌縣邑誌』(奎 17449, 1786), 호자. 남구만이 근거한 읍지는 『합장현읍지』(규 17449) 이전의 읍지로 보인다.

55) 『順菴集』 권18, 記. 『용궁읍지』(규 17450, 1785), 인물.

56) 『일성록』, 정조 3년 8월 5일.

57) 『響山集』(李晚燾) 권13, 墓碣銘 虞候朴公墓碣銘 幷序.

58) 『林下筆記』 권12, 문현지장편.

59) 『桐溪集』(鄭蘊) 속집 권3, 부록, ‘대정 유허비’(이원조).

60) 『성종실록』 권138, 성종 13년 2월 임자.

국통감』, 『동문선』과 함께 『여지승람』이 반드시 이송해야 할 문헌이라고 할 정도로 중요 문헌이었거니와⁶¹⁾ 지방의 처지에서도 이를 여지류가 후대로 가면 역사의 중요 근거를 제공하므로 고을의 역사를 담은 邑史라고 여길 만하다.

그리하여 이규경은 『五洲衍文長箋散稿』에서 중국 史類와 함께 東國史類를 개관할 때, 『승람』과 『팔도읍지』를 포함시켰다.⁶²⁾ 또한 읍지 편찬 당사자도 국사를 나라의 역사로 규정하는 한편 읍지를 고을의 역사라고 정의하였다. 그리하여 19세기 후반에도 읍지와 『승람』은 『璿源譜略』과 함께 국조 문헌 중에 소중한 문헌 중의 하나로 중시되었다.⁶³⁾

3. 구성상 특징과 내용상 경향

『승람』과 『여지도서』는 편찬 시기가 다를뿐더러 편찬 동기가 상이하여 체제상 항목이 동일하지 않았다. 즉 『승람』에 들어 있지 않은 전결, 호구, 군역, 부세, 제언, 도로 등의 사회경제 항목이 『여지도서』에 새로 들어갔다. 그것은 이들 항목이 통치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한 항목이라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다.⁶⁴⁾ 그러나 이 글에서는 항목간의 가감보다는 동일 항목의 내용 차이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여지도서』에만 설정되어 있는 항목은 제외하였다.

우선 『승람』의 구성상 특징과 내용상 경향을 일목요연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편찬자의 항목 설정 의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편찬자 梁誠之의 상소는 다음과 같다.

61) 『선조실록』 권40, 선조 26년 7월 임술.

62) 『五洲衍文長箋散稿』 경사편 4, 사적류 1, 史籍總說. 물론 이러한 읍지는 ‘其他 典籍’으로서 지지류도 포함시켰다(『오주연문장전산고』 경사편 4, 경사집류 2, 기타 전적).

63) 『승정원일기』, 고종 36년 4월 15일.

64) 변주승, 앞의 논문, 442-446면.

신이 그윽이 생각하건대 『동국여지승람』은 文翰의 요긴한 서적입니다. 山川의 形勝과 州郡의 沿革들은 이로 인하여 알 수 있으며, 풍속의 좋고 나쁨과 인재의 훌륭하고 훌륭하지 못한 것도 이 서적으로 인하여 상고하게 되며, 심지어 詩로써 物像을 읊조린 것과 文으로써 사실을 기록한 것들도 모두 가볍게 여길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인쇄하여 반포하도록 명령하시면 斯文에 매우 다행하겠습니다.⁶⁵⁾

이를 통해 『승람』에는 강역, 산천, 형승, 고을, 연혁, 풍속, 인물, 제영, 기문 등을 기술하여 전승하고자 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⁶⁶⁾

특히 記文의 경우, 이는 단지 양반관료들의 문학 활동의 산물에 그치지 않았다. 그것은 자신의 문학적 시상을 넘어서 사건의 실상과 건축 과정 등을 기록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즉 “記는 잊지 않기 위한 것이다. 예를 들어 건축을 기록할 때 당연히 날은 얼마나 걸리며, 공사 비용은 얼마이며 누가 주로 하고 누가 보좌했는지 그 사람의 성명을 적어야 한다.”⁶⁷⁾ 따라서 당시 중앙 관료이든 지방 관료이든 일종의 史家的 處地가 되어 기문을 남겼고 『승람』의 편찬자들은 역대 관료들의 이러한 기문을 적극 수용하여 고을의 건물 연혁, 크기, 위치, 공사기간, 공사 비용 등을 후세에 전승하고자 하였던 것이다.⁶⁸⁾ 양성지가 언급한 “文으로써 사실을 기록한 것”이 여기에 해당한다. 또한 題詠 역시 物像을 읊조렸기 때문에 제외될 수 없었다. 따라서 이러한 기문과 제영은 역사 기술의 재료인 것이다.

또한 이러한 『승람』은 정조 연간에 편찬된 『해동여지통재』와 비교하여 구성상 특징을 엿볼 수 있다.⁶⁹⁾ 김종수의 발언은 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65) 『성종실록』 권138, 성종 13년 2월 임자.

66) 김건곤 외, 2014 『동국여지승람제영사전 제영편』,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 김건곤 외, 2016 『동국여지승람제영사전 산천편』,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67) 徐士曾, 「文體明辯」, 김기림, 2003, 「서거정 記文에 대한 서술전략 고찰」, 『한국고전연구』 9, 193면 재인용.

68) 김은미, 1990 「조선초기 누정기의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8면.

69) 『해동여지통재』의 편찬 배경과 경위, 구성 등에 관해서는 양진석, 2013 「18세기 말 전국 지리지 『해동여지통재』의 추적」, 『규장각』 43 참조.

김종수가 아뢰길 “『海東邑誌』를 속히 끝마치라는 명을 받들었습니다. 편찬하는 凡例를 아직 확정하지 못하여 더러 서로 어긋나는 것이 많으니 지금 바로잡아 하나로 결정하지 않아서는 안 됩니다. 중국의 『一統志』는 事實에는 자세하나 詩文에는 간략하고, 우리나라 『東國輿地勝覽』은 事實에는 간략하나 詩文에는 자세합니다. 지금 이 읍지는 편찬하게 된 본뜻으로 말하면 『일통지』의 體例를 따라야 하지만 지난번 연석에서 ‘시문을 또한 너무 간략하게 할 필요는 없다.’고 하신 성상의 하교를 반영한 듯합니다. 사실과 시문을 양쪽 모두 자세하게 하고자 한다면 卷帙이 번다해지는 것을 뛸시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시문 중에서 사실과 관련이 있는 것만을 대략 취하여 요약해서 載錄하고, 그 나머지는 名人의 名作으로 인구에 膾炙되는 것 외에는 모두 생략하는 것이 좋을 듯하므로 감히 진달합니다.”⁷⁰⁾

이에 따르면 조선 후기에도 『승람』은 사실은 간략하게 기술하고 시문은 자세하게 수록하였다고 인식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후술하는 바와 같이 구성상 특징과 내용상 경향에서 잘 드러난다.

반면에 『여지도서』의 세간 풍속, 물산은 世教와 治道와 관련되기 때문에 『승람』과 달리 이 항목을 넣었다.⁷¹⁾ 특히 절의와 충절을 드러낸 것은 역대 왕조가 배양하고 인도한 ‘성대한 사업’과 ‘신령한 교화’를 따른 것이다. 이른바 世教를 위한 정보의 수록이다. 이 역시 후술하는 바와 같이 임진·정유왜란과 병자호란 시 충절자에 대한 상세한 수록에서 단적으로 드러난다. 또한 『여지도서』는 물산, 부세 항목에 중점을 두었다. 그리하여 『海東輿地通載』 편찬시 유의점은 미완성으로 그친 『여지도서』의 물산, 부세 항목 기재에 보강할 것을 강조하였다. 정조와 조진택의 대화에서 다음과 같은 정조의 언급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정 조 : 邑誌를 修整하는 일이 지금 얼마나 진전되었는가.

조진택 : 각각 2개의 大邑에 대해 먼저 草案을 잡았는데 이것도 아직 끝마치지 못하였습니다. 지금 가지고 들어온 『平康邑誌』도 舊本입니다.

정 조 : 구본에는 上納의 名色을 기재하지 않았다. 新本의 凡例에는 백성들에게 거두어서 서울로 상납하는 모든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어느 어느 명색이라고 일일이 조목조목 나열하는 것으로 하라.⁷²⁾

70) 『일성록』, 정조 13년 11월 20일.

71) 『홍재전서』 권162, 일득록 2.

이에 따르면 『여지도서』에는 상납 명색이 들어 있지 않아 『해동여지통재』에서 는 이 항목을 보강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여지도서』가 상납 항목을 누락 시켰지만 물산, 부세 항목에 중점을 두었음을 반증한다. 그러한 특성은 『여지도서』 가 『세종실록지리지』와 마찬가지로 『승람』에서 빠진 호구, 전결, 부세, 군병 등 국가의 통치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경제와 군사 관련 조항을 수록한 데서 확인할 수 있다.⁷³⁾ 이른바 治道를 위한 정보의 수록이다.

또한 『승람』과 『여지도서』는 공히 견치연혁을 수록하고 있다. 이는 고을의 읍호 승강 연혁을 살피는 데 중요 자료이기 때문이다.⁷⁴⁾

그러면 이 글에서 검토 대상으로 삼고 있는 『승람』과 『여지도서』의 내용상 공통점과 차이점을 구체적으로 추출하기에 앞서 양자의 상관성을 개략적으로 살피기 위해 『승람』에 對比하여 『여지도서』의 군현별 제반 항목의 기술 상태를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다만 『여지도서』의 신설 항목은 『승람』의 기존 항목과 비교하기 어려우므로 제외하였다.

<표 1> 『신증동국여지승람』 대비 『여지도서』 수록 전라도 고을의 항목 기술 상태

항목 고을	강 역	견 치 연 혁	산 천	궁 실 공 해	누 정	학 교	명 환	인 물	충 효 열	풍 속	형 승	성 곽	사 묘	불 우	창 고	고 적	제 영
홍덕	●	●	●	◇				●	○	◇	◇	◇				◇	◇
부안	●	☆	○		☆		◇	●	●	○	○	○				☆	◇
옥구	●	☆			☆		◇	◆	◆	◎		◆		○		◇	◇
용안	●	☆					◇	●	●	▲	●	●		○	○	●	◇
함열	●	☆					◇	◎	◆	◎		●			◎	◇	
고산	●	☆						☆	☆	◆	◇			◇	◎	○	◇
태인	●	☆		○		◇	◇	●	◆	◎				○		☆	◇
나주	●	☆		○	○	◇	◇	◆	●	☆	☆		○	○	○	☆	◇
광산	●	☆	○	○	○	◇	○	●	●	●	☆		○	○	○	○	◇
영암	●	☆	○	○	○		◇	●	●	●	☆	○		◆		○	◇

72) 『일성록』, 정조 11년 10월 5일.

73) 변주승, 앞의 논문, 442-443면.

74) 『숙종실록』 권27, 숙종 20년 9월 경진.

영광	●	●	○	○	○	◇		●	●	●	☆		●	○		○	◇
함평	●	☆	○	○	○	☆	◇	●	●	●	◎	☆	●	●		○	◇
고창	●	☆	○	◎	○	◇	◇	●	●				●		●	●	◇
장성	●	●	○		◆	◇		●	●		○		●	○		○	◇
무장	●	☆	○	○	○	◇	◇	●	●	●	☆		●	○		●	◇
남평	●	☆	○		◆	◇	◇	◆	●	●	☆		●	☆		●	◇
무안	●	☆	○	○	◆	◇	◇	●	●	◎			◆	●		◆	◇
장흥	●	☆	○	○	◇	◇	◇	●		●	●		◆	○		○	◇
진도	●	☆	○	○	○	◇	◇	●	●	○	◆		●	◆		◆	◇
강진	●	☆	○	○	○	◇	◇	●	●	◎	○	○	●	○		○	◇
해남	●	☆	◆	◆	○	◇	◇	●	●	●	◎		●	○		○	◇
순창	●	●	◆		○	◇	◇	●	●	●	◎	○	●	☆		●	◇
용담	●	●	○	◆	○	◇	◇	●	●	●	○	○	◎	○		◆	◇
장평	●	●	○		○			●	●				○	○		○	◇
임실	●	☆	○					●			☆		●	◆		◆	◇
무주	●	☆	○	○	○	◇			◆	○			●	◆		○	◇
곡성	●	☆	○		○				○				●	◆		◆	
옥과	●	☆			○			●	●				●	◆		☆	
운봉	●	●	○					●	●	●	●		◆			○	◇
장수	●	☆	○		○			●	●				●	○		●	◇
순천	●	☆	○	○	○	◇	◆	●	●	◆			○			◇	
낙안	●	●	○	○	○	◇	●	●	●	◎	◆		●	○		◇	
보성	●	●	○		○	◇	●	●	●	○			●	○		☆	◇
능성	●	●	○	◇	○			●	●	●	○		●	○		○	◇
광양	●	●	◆		○	◇	○	○	◎	◆			●	○		○	◇
구례	●	☆	◆		○			◎	●	●	○		◆			◆	◇
홍양	●	☆			○			●	●	●	○	○	●	○		☆	◇
동복	●	☆	○					◎	●	●	○	○	●	○		☆	◇
화순	●	●	○					●	●		○		●	○		○	◇

비고 : ☆: 동일, ○: 축소, ●: 증보, ◎: 신설, ◇: 누락, ◆: 변경(일부 증보, 일부 축소), ▲: 대체

『여지도서』에 누락되어 있는 군현(16개)과 감영, 병수영은 제외함.

총효열은 필자가 표의 간편을 위해 충신, 효자, 열녀 항목을 통합한 것임.

공백 부분은 양자에 해당 항목이 없음.

〈표 1〉에 따르면 『여지도서』는 『신증동국여지승람』과 비교할 때, 강역, 인물, 충신, 효자, 열녀, 사묘 항목에서 증보한 반면에 명환, 학교와 제영은 대부분 누락시

켰다. 그것은 중앙 정부의 기본 방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견치 연혁의 경우는 일부 군현을 제외하고는 동일하다. 山川, 宮室, 公廨, 樓亭, 佛宇 등은 대부분 축소 기술하였다. 또한 풍속과 형승은 고을마다 제각각이어서 일부 고을은 증보했는가 하면 다른 일부 고을은 축소하기도 하였다. 그것은 중앙 정부의 방침에 구애되지 않고 개별 고을들이 자기 나름의 기준과 사정에 따라 축소 보고하기도 하고 증보 보고하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다음 양자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표 1〉의 증보, 축소, 변형 등의 특이점에 초점을 맞추어 구성상 특징과 내용상 경향을 추출하면 다음과 같다. 다만 姓氏의 경우, 기준의 연구가 상당수 있어 제외하였다.

첫째, 疆域에서는 〈표 2〉와 같이 『승람』의 경우, 주위 고을과의 거리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반면에 『여지도서』의 경우, 상급 기관을 먼저 기술하고 주위 고을과의 거리는 물론 감영, 병영, 좌수영, 우수영, 통영과의 거리를 기입하고 있다.⁷⁵⁾ 그 것은 양란 이후 집권체제가 강화되면서 행정적 · 군사적 위계 연망을 강화하고자 한 시책의 반영으로 보인다.

〈표 2〉 『신증동국여지승람』 부안현과 『여지도서』 부안현의 강역 항목 비교

승람 부안현	여지도서 부안현
동쪽으로 金堤郡의 경계에 이르기까지 13리, 남쪽으로 古阜郡의 경계에 이르기까지 18리, 興德縣의 경계에 이르기까지 52리, 북쪽으로 萬頃縣의 경계에 이르기까지 12리, 서쪽으로 바닷가에 이르기까지 11리, 서울과의 거리는 5백 77리이다.	전주진관소속이다. 동쪽으로는 김제군과의 경계까지 15리이며, 서쪽으로는 바닷가까지 60리이다. 남쪽으로는 고부군과의 경계까지 18리이며, 북쪽으로는 만경현과의 경계까지 20리이다. 북쪽으로 서울까지 5백 40리, 옛세가는 거리이다. 동쪽으로 감영까지 1백 리로, 하루 가는 거리이다. 남쪽으로 병영까지 2백 80리로, 사흘 가는 거리이다. 남쪽으로 좌수영까지 3백 70리로, 나흘 가는 거리이다. 남쪽으로 우수영까지 3백 90리로, 나흘 가는 거리이다. 동쪽으로 통영까지 6백 30리로, 옛세반 가는 거리이다.

비고 : 번역은 『신증동국여지승람』과 『여지도서』는 각각 한국고전번역원의 번역본과 변주승 역주본, 흐름, 2009에 의거함. 동일 문장임에도 번역자의 상이로 표현이 다르기도 하다. 이하 표 동일.

75) 부안의 경우가 여러 고을의 대표적인 사례라기보다는 자료의 일관성을 염두에 두고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양자의 대비가 분명치 않을 경우에는 여타 군현의 기재 내용도 활용하였다.

둘째, 建置 沿革에서는 〈표 3〉과 같이 『여지도서』가 『승람』의 내용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 일부 고을에서는 『승람』 이후 변동 사항을 약간 증보하고 있다.

〈표 3〉 『신증동국여지승람』 부안현과 『여지도서』 부안현의 건치연혁 항목 비교

승람 부안현	여지도서 부안현
扶寧縣은 본래 백제 皆火縣이었는데, 신라 때 부령 (혹 戒發이라고도 칭한다.)으로 고치어 고부군에 붙였고, 고려 때에도 그대로 붙여 두었다가 후에 감무를 두어 保安을 겸임하였다. 보안현은 본래 백제 欣良買縣이었는데, 신라 때 喜安으로 고치어 고부군에 붙였고, 고려 때 보안으로 고치어 고부군에 그대로 붙여 두었다가, 후에 부령감무로 겸임하게 하였으며, 辛禡 때에 두 현에 각각 감무를 두었다. 본조 태종 14년에 보안을 다시 부령에 합쳤고, 15년에 또 나누었다가 8월에 다시 합쳤으며, 다음해 7월에 또 나누었다가 12월에 두 현을 또 합치어 지금 이름으로 고쳤다.翌年에 興德鎮을 통하여 본현에 옮겨서 扶安鎮이라고 부르고, 兵馬使로써 刑事를 겸하게 하였고, 세종 5년에 규례대로 고치어 僉節制使로 만들었다가 후에 현감으로 고쳤다.	扶寧縣은 본래 백제 皆火縣이다. 신라 때 부령 (혹 戒發이라고도 부른다)으로 이름을 바꾸어 고부군에 소속시켰다. 고려 때 監務를 두고 保安縣을 겸임하게 했다. 보안현은 본래 백제 欣良買縣이다. 신라 때 喜安으로 이름을 고쳐 역시 고부군에 소속시켰다. 신우 때 부령·보안 두 현으로 나누어 각각 감무를 두었다. 본조 태종 14년에 보안현을 다시 부령현에 합쳤고, 15년에 또 두 고을로 나누었다가 8월에 다시 합쳤으며, 다음해 7월에 또다시 두 고을로 나누었다가 12월에 두 현을 다시 합쳐 지금 이름인 부안현으로 고쳤다. 이듬해 興德鎮을 없애서 본현에 옮겨 소속시키고 扶安鎮이라고 불렀으며, 兵馬使로서 刑事를 겸임하게 했다. 세종 5년에 僉節制使를 두는 것으로 고쳤다가, 그뒤 縣監을 두는 것으로 고쳐 전주진에 소속시켰다.

셋째, 풍속에서는 〈표 4〉와 같이 『승람』의 경우, 저자의 작품을 근거로 해당 고을의 풍속을 소개하면서 전거와 작자를 밝히고 있는 데 반해 『여지도서』의 경우, 핵심 내용만 기술하고 전거와 작자는 생략하였다.

〈표 4〉 『신증동국여지승람』 부안현과 『여지도서』 부안현의 풍속 항목 비교

승람 부안현	여지도서 부안현
풍속은 蟹子(중국 남방 해변가에서 생활하는 종족)와 같다. 이규보의 시에, “습속은 남방 단자와 많이 같으니 현으로 된 것이 蠶叢國으로부터 시작된 줄 어느 누가 믿으랴.” 하였다.	중국 남방의 바닷가에 사는 蟹子의 풍속과 비슷하다.

그러나 일부 고을에서는 〈표 5〉의 용인현과 같이 출전 유무와 상관없이 내용 자체가 완전히 변경되기도 하였다.

〈표 5〉 『신증동국여지승람』 용안현과 『여지도서』 용안현의 풍속 항목 비교

승람 용안현	여지도서 용안현
行鄉飲酒禮 읍 사람들이 봄·가을로 마련하여 고을의 술마시는 예를 만들었는데, 나이 8·90이 된 이가 한 자리요, 6·70이 된 이가 한 자리요, 50 이하를 한 자리로 만드니, 나이로써 구별하게 한 것이다. 사람을 시켜 誓文을 읽고 말하기를, “부모에게 불효하는 자는 쫓아내고, 형제끼리 회복하지 않는 자도 쫓아내며,朋友에게 신의가 없는 자도 쫓아내고, 조정을 비방하는 자도 쫓아내며, 수령을 혐뜯는 자도 쫓아낸다. 첫째 德業은 서로 권할 것, 둘째 허물은 서로 바로잡아 줄 것, 셋째 禮俗을 서로 이를 것, 넷째 어려운 일에 서로 구휼할 것이니, 무릇 같은 시골의 사람들은 각각 효성과 우애, 충성과 신의를 다하여 모두 후한 마음으로 돌아가라.” 하니, 읽은 뒤 모두 再拜하고 飲射의 예를 행했다.	순박하고 아낄 줄만 알며 달리 잔꾀를 부릴 줄 모른다. 살림살이는 가난하지만 농사에 힘쓴다. 분수에 넘치는 일은 결코 하지 않는다. 효도와 우애하려고 부지런히 힘쓰는 기풍이 있다.

즉 『승람』에는 鄉飲酒禮 풍속이 기술된 반면에 『여지도서』에는 전형적인 유교 풍속이 기술되어 있다. 그것은 15세기 말 士林의 계속적인 노력으로 1488년 5월 留鄉所 復立이 결정되었는데 복립과정을 전후하여 향음주례가 용안현을 비롯한 몇몇 고을에서 선구적으로 시행된 것을 기술한 것으로 보인다.⁷⁶⁾ 다만 조선 후기에 향음주례가 보편화되어 그 의미가 퇴색되면서 이러한 기술이 불필요해 진 것이 아닌가 한다. 그럼에도 전자는 洪錫謨의 『東國歲時記』에서 용안의 3월 기타 풍속으로 기술될 정도로 많은 이들의 주목을 받았다.⁷⁷⁾

넷째, 형승에서는 『여지도서』가 작자를 밝히고 있지만 『승람』과 달리 記文의 중

76) 용안현의 향음주례 시행에 관해서는 고영진, 1998 「조선 중기 鄉禮에 대한 인식의 변화」, 『국사관논총』 81, 16면 참조.

77) 洪錫謨, 『東國歲時記』, 3월.

요 내용을 대거 생략하는 경우도 많았다. 예컨대 〈표 6〉과 같이 부안현의 경우, 『여지도서』에서는 『승람』과 달리 邊山이 중앙에 목재를 공급하는 목재산지임을 확인할 수 없게 하였다. 즉 양성지가 題詠과 記文을 통해 사실을 기록하고자 노력했던 의도가 『여지도서』에서는 실현되지 않았다. 이는 다른 군현에서도 마찬가지이다.

〈표 6〉 『신증동국여지승람』 부안현과 『여지도서』 부안현의 形勝 항목 비교

승람 부안현	여지도서 부안현
邊山天府 이규보의 시에, “邊山은 예로부터 天府로 불리면서, 긴 재목 잘 뽑아 棟樑 재목에 대비하네.” 하였다. 江山清勝 앞 사람의 시에, “강과 산의 맑고 좋은 것은 濱洲 · 蓬萊와 겨룰 만하니, 옥을 세우고 은을 녹인 듯 만고에 변하지 않는다.” 하였다.	변산이 고을을 가로질러 우뚝 솟아 있다.(관아의 서쪽 1백리에 있다. 빙 둘러 싸안고 겹겹이 포개어져 있는데, 남쪽 · 서쪽 · 북쪽은 바다에 닿아 있고 동쪽은 육로로 열려 있다. 이규보의 시에 “변산은 예로부터 천혜의 땅으로 불렸다”라는 구절이 있다.

다섯째, 성곽에서는 〈표 7〉과 같이 『승람』이 성의 규모는 물론 축조 과정이 상세한 테다가 김종직의 시문을 통해 성내 분위기와 능가산의 전략적 가치를 짐작할 수 있는 데 반해 『여지도서』는 단지 성의 재료, 규모, 우물 등을 알려주고 있을 뿐이다.

〈표 7〉 『신증동국여지승람』 부안현 城郭과 『여지도서』 부안현 城池의 항목 비교

승람 부안현	여지도서 부안현
邑城 흙으로 쌓았는데, 둘레가 1천 1백 88척, 높이는 15척이요, 안에 샘물이 12개 있으며, 동쪽 서쪽 남쪽 3면에 모두 譙樓[성문다락]을 세웠다. 『신증』 볼로 쌓았는데, 둘레가 1만 6천 4백 58척, 높이는 15척이요, 안에 샘물이 16개 있다. ○ 김종직의 시에, “천길 산봉우리 樓觀이 기이하여 익지로 쇠약하고 피로한 몸 이끌고 높은 곳에 익지했네. 금을 녹여 낸 듯한 해는 群山島에 떨어지고, 환 것을 묶어 세운 듯한 연기는 碧骨陂에 비쳤어라. 몸이 반 공중에 있으니, 눈 가는 곳이 멀고, 시는 일만 형상 더듬자니 술잔 놓기 더디구나. 능가산은 예로부터 天府로 불렸는데, 오늘날 쇠잔한 용모 대할 줄 어찌 기약했으랴.” 하였다.	邑城 둘로 쌓았다. 둘레는 1만 6천 4백 50척이며, 높이는 15척이다. 성안에 16개의 우물이 있다.

여섯째, 고적에서는 〈표 8〉과 같이 『승람』이 磨縣과 향소부곡의 실태를 기록하고 있는 데 반해 『여지도서』의 다수 군현에서는 조선 후기 사회 변동에 치중한 나머지 조선전기 磨縣과 향소부곡의 실태가 대거 누락되어 있다.⁷⁸⁾ 물론 일부 고을에서는 관련 전설을 증보하고 있다. 옥구현의 경우, 자천대를 소개하면서 최치원이 노닐던 곳이었음을 밝히고 있다. 이러한 전설은 사실 여부를 떠나 옥구와 최치원의 관계를 추적할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한다.

〈표 8〉 『신증동국여지승람』 옥구현과 『여지도서』 옥구현의 고적 항목 비교

승람 옥구현	여지도서 옥구현
澮尾磨縣 현의 동쪽 15리에 있는데, 連江이라고도 한다. 본래 백제 夫夫里縣이었는데, 신라 때 지금 이름으로 고치어 임피현에 불였고, 고려 때는 그대로 하였다. 본조에서는 태종 3년에 이 고을로 불었다.	紫遷臺 관아의 서쪽 20리 바닷가에 있다. 민간에 전하는 말에 따르면, 孤雲 崔致遠이 노닐던 곳이라고 한다.

일곱째, 산천에서는 〈표 9〉와 같이 『승람』에서는, 기문을 통해 궁실과 배와 재목이 고려 때부터 중앙 정부에 제공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반해 『여지도서』에서는 단지 邑治와의 거리만 기재할 뿐 여타 내용이 누락되어 해당 고을의 사회 경제적 현황을 파악할 수 없다. 위도의 경우, 『여지도서』에서는 魚梁에 관한 기술이 없는 데 반해 『승람』에서는 자세히 기술하고 있다.

〈표 9〉 『신증동국여지승람』 부안현과 『여지도서』 부안현의 산천 항목 비교

승람 부안현	여지도서 부안현
邊山 보안현에 있다. 지금 현과의 거리는 서쪽으로 25리인데, 능가산으로도 불리고, 영주산으로도 불린	上蘇山 도동산에서 뻗어 나와, 고을의 으뜸이 되는 산줄기를 이룬다.

78) 여타 군현에서는 부안과는 다르게 폐현은 물론 조선 시대 이전 향소부곡의 연혁에 대해서 상세히 기술하고 있다. 향소부곡에 대해서는 이수건, 1971 「朝鮮初期 郡縣制 整備에 대하여」, 『영남사학』 1 ; 박종기, 2000 「朝鮮初期의 部曲」 『국사관논총』 92 ; 정요근, 2016 「고려시대 鄉·部曲의 성격 재검토 - 下三道의 향·부곡 주요 밀집 분포 지역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 『사학연구』 124 참조.

<p>다. 혹 卞山이라고도 하는데, 말이 돌아다니다가 邊으로 되었다 한다. 卞韓이라는 이름을 얻은 것이 이 때문이라 하나 그런지 아님 알지 못한다. 봉우리들이 백여 리를 빙 둘러 있고 높고 큰 산이 첨첩이 짜여 있으며, 바위와 골짜기가 깊숙하여, 궁실과 배의 재목은 고려 때부터 모두 여기서 얻어 잤다. 전하는 말에는 호랑이와 표범들이 사람을 보면 곧 피하였으므로 밤길이 막히지 않았다 한다. ○ 이규보의 기에, “변산은 나라 재목의 府庫이다. 소를 가릴 만한 큰 나무와 찌를 들풀처럼 나무 줄기가 언제나 다하지 않았던 것이다. 층층의 산봉우리와 겹겹의 산등성이가 올라가고 쓰러지고 굽고 퍼져서, 그 머리와 끝의 둔 곳과 밑 뿌리와 옆구리의 땅은 곳이 몇 리나 되는지 알지 못하겠으나, 옆으로 큰 바다를 굽어보고 있다.” 하였다. 『신증』 김종직의 시에, “禹強이 힘써 옮긴 뜻 상상하니, 까마득한 몇 만년 땅의 主軸을 누르기 위함일세. 성루[譙樓]는 바로 높은 풋말[標]과 맞섰고, 바다는 아래 절은 안개 걷혀 시원하다. 울창한 좋은 재목 일천 봉우리에 모였고, 소담한 寶刹은 못 魔鬼들도 알고 있네. 산 가운데 몇 개의 황망한 일은, 春卿(이규보의 자)의 백 마디 시 끌어 냄일세.” 하였다. 幸安山 현의 남쪽 10리에 있다. 石佛山 현의 서쪽 20리에 있다. 바다 현의 서쪽 25리에 있다. 東津 通津이라고도 한다. 碧骨堤와 訥堤의 물이 합해져 북쪽으로 흘러 이 나루가 된다. 현의 동쪽 16리에 있다. 沙浦 현의 서쪽 25리에 있다. 長信浦 현의 서쪽 20리에 있다. 柳浦 현의 남쪽 50리에 있다. 德達浦 현의 북쪽 20리에 있다. 堀浦 현의 서쪽 25리에 있다. 鳩島 현의 서쪽 바다 가운데에 있는데, 둘레가 20리이다. 蟻島 현의 서쪽 바다 가운데에 있는데, 둘레가 30리이며, 魚梁이 있다. ○ 薛文遇가 侍御 崔咸一이 위도로 귀양가는 것을 전송한 시에, “곧은 절개라야 참 烏府[어사대]인데, 변변찮은 내 재주로 羯冠[어사]를 더럽혔네. 수놓은 비단같은 재주야 어찌 같으랴만 배 속에 들어 있는 보배 서로 쟁았었네. 盛代에서 보탠 것은 비록 없지만, 동료들은 모두 높이 보았네. 임금을 착하게 하려는 마음 버리지 못해, 나라 걱정에 두 귀밀털 헛되이 쇠는구나. 간사한 무리들은 张禹 따위가 많은데, 서로 알아주는 比干 같은 이는 너무 적다. 이 때에 갈라져서 그대는 가고 나는 머무르니, 어느 곳에서 평안함을 물을 것인가. 시루는 깨어졌는데 누가 애석해 하나.</p>	<p>邊山 홍덕의 반등산에서 뻗어 나온다. 관아의 서쪽 45리에 있다. 石佛山 변산에서 뻗어 나온다. 관아의 서쪽 20리에 있다. 首陽山 석불산에서 뻗어 나온다. 관아의 서쪽 25리에 있다. 墨方山 변산에서 뻗어 나온다. 관아의 서쪽 25리에 있다. 道所峰 목방산에서 뻗어 나온다. 관아의 서쪽 5리에 있다. 幸安山 도소봉에서 뻗어 나온다. 관아의 서쪽 5리에 있다. 道洞山 행안산에서 뻗어 나온다. 관아의 남쪽 8리에 있다. 望氣山 상소산에서 뻗어 나온다. 관아의 동쪽 3리에 있다. 바다 관아의 서쪽 25리에 있다. 東津 관아의 동쪽 10리에 있다. 長信浦 관아의 서쪽 25리에 있다. 沙浦 관아의 서쪽 45리에 있다. 柳浦 관아의 남쪽 40리에 있다. 德達浦 관아의 북쪽 20리에 있다. 堀浦 관아의 서쪽 25리에 있다. 鳩島 관아의 서쪽 10리에 있다. 王登島 관아의 서쪽 60리에 있다. 界火島 관아의 북쪽 10리에 있다.</p>
---	---

<p>하늘은 높아도 듣기는 어렵지 않다네. 龍泉은 도리어 옛 옥터로 돌아갔는데, 蝦島는 이 새 벼슬이로다. 두 곳에는 외로이 둑근 달 떴는데, 조각배엔 한 낚싯대로다. 다시 만날 날이 있을 터이니, 잘 가서 먹는 것 조심하게나.” 하였다. 界火島 현의 서쪽 30리에 있는데, 조수가 물러나면 육지와 연결된다. 禹陳巖 변산 꼭대기에 있다. 바위가 둑글면서 높고 크며 멀리서 보면 눈빛이다. 바위 밑에 3개의 굴이 있는데, 굴마다 중이 살고 있으며, 바위 위는 평탄하여 올라가 바라볼 수 있다.</p>	
--	--

물론 일부 고을 산천 항목에서는 <표 1>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흥덕과 같이 증보되거나 순창, 광양, 구례와 같이 변경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전라도에 국한하여 양자를 비교할 때 산천 항목이 『여지도서』에서는 위치와 소재만이 기재되는 고을이 많다.

여덟째, 궁실에서는 『승람』의 경우, 題詠과 記文이 주로 수록되는 데 반해 『여지도서』의 경우 대부분 누락되었다. 그 결과 해당 고을 건물의 내력이 대거 누락되거나 중요한 사회경제적 사정이 『여지도서』에 전승되지 않기도 한다. 전자의 경우, <표 10>이 잘 보여주고 있다.

<표 10> 『신증동국여지승람』 태인현 궁실 항목과 『여지도서』 태인현 공해 항목 비교

승람 태인현	여지도서 태인현
<p>객관 정곤의 기에, “태인현은 곧 옛날의 태산과 인의 두 고을인데, 우리 조정에서 두 고을의 이름을 아울러서 태인이라 하였다. 읍내는 옛날 태산의 동쪽 구석에 치우쳐 있었기 때문에, 인의의 백성들이 왕래하는데 병통으로 여겼다. 병신년 가을 8월에 현감 黃敬敦이 두 고을의 중간 지점인 거산의 옛 객관을 현의 객관으로 삼았으나, 너무 좁고 누추하였다. 무술년 겨울에 吳致善이 이어 와서 드디어 옛 객관의 서쪽에 지세를 살피고, 기해년 가을에 비로소 後廳 · 東西寢 · 南廳 · 東西行廊을 세우니, 모두 몇 칸이다. 신축년 여름에 安起가 吳公의 뜻을 이어받아 左右廊 · 좌우마구[左右廡] · 대문 · 庫屋 · 향교 · 聖殿을 더 세우니, 모두 몇 칸이다.” 하였다.</p>	<p>객관, 아사, 향사당, 훈련청 이상의 건물은 모두 읍내에 있다.</p>

〈표 10〉에 따르면 『승람』에서는 태인현의 유래, 관아 입지 사정, 관아 규모와 내력 등이 소상하게 기술되어 있는 반면에 『여지도서』에서는 단지 건물의 장소만 기술되어 있을 뿐이다. 『여지도서』의 이러한 특징은 〈표 1〉에서 볼 수 있듯이 무장현, 장흥도호부 등 여러 고을에서 공히 드러난다.

후자는 나주목이 이를 잘 보여준다. 나주목 객관에 써있는 서거정의 重新記가 『승람』에만 남아 있는데 나주목은 물산이 풍부하여 조세량이 많고 사방의 상인들이 몰려들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는 데 반해 『여지도서』에서는 누락되어 있다.⁷⁹⁾ 그것은 전술한 바대로 『승람』이 『동문선』에 근간하여 시문을 많이 수록하고자 한 데 반해 『여지도서』는 통치 정보 수록에 주안을 두고 지방 통치 자료 수집의 차원에서 별로 소용이 없다고 판단된 이들 항목을 대거 생략하였던 것이다. 특히 『여지도서』에서는 『승람』과 달리 저자가 기재되지 않는 경우가 매우 많았다. 다만 경상도의 경우, 사족들의 입김이 센 탓에 기문과 제영, 학교, 명환, 궁실 등이 대거 남아 있었다. 그것은 고을 나름대로 고을의 역사를 중앙의 지침대로 기술하지 않고 고을 고유의 역사를 남기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⁸⁰⁾ 인물 역시 여타 도에 비해 훨씬 증보되어 있다.

아홉째, 佛宇에서는 부안현의 경우와 달리 『승람』 옥구현의 경우, 천방사를 기술하면서 김유신과 소정방이 이끄는 나당연합군의 상륙 전설이 나온다. 그러나 『여지도서』에서는 단지 은적암의 위치만 소개하고 있다. 천방사가 조선후기에 폐사되면서 이와 관련된 전설도 누락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기술 방식은 나주목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⁸¹⁾ 이에 따르면 『승람』의 경우, 興龍寺를 기술하면서 이와 관련된 고려 장화왕후 오씨의 혜종 임태 전설을 상세히 기록하고 있는 데 반해 『여지도서』의 경우, 흥룡사의 위치만 기술하고 있다. 다만 함평현 등 일부 고을에서 볼

79) 『신증동국여지승람』, 전라도 나주. “徐居正의 重新記에, ‘나주는 전라도에서 가장 커서 땅이 넓고 백성과 물자가 번성하다. 땅이 또한 바닷가라 벼가 많이 나오고 물산이 풍성하니, 이에 전라도의 조세가 모이는 곳이며 사방의 상인들이 몰려든다.’”

80) 이제두, 앞의 논문, 255-261면.

81) 『신증동국여지승람』, 전라도 나주 ; 『여지도서』, 전라도 나주.

수 있듯이 『승람』과 『여지도서』에 공히 기문이 없는 가운데 『여지도서』에서 당대의 상태를 증보 기술하기도 하였다.⁸²⁾

열번째, 名宦에서는 『승람』의 경우, 『고려사』 열전 등에 근거하여 고려 인물들을 수록한 데 반해 『여지도서』의 경우, 고려 시기 인물들을 대거 누락시켰다.⁸³⁾ 나주목 명환 항목의 경우가 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예컨대 『승람』에서는 朱悅, 金慶孫, 崔璘, 金應德, 閔宗儒, 張沆, 閔頤, 尹澤, 全輔仁 등의 공적이나 관력이 기술되어 있는 데 반해 『여지도서』에서는 명환 항목을 아예 두지 않아 이들 인물의 공적이나 관력을 확인할 수 없다.⁸⁴⁾ 여타 고을도 마찬가지여서 〈표 1〉은 이러한 실상을 잘 보여준다.

열한번째, 충신, 효자와 열녀에서는 『승람』의 경우, 양란 이후 왜군에 맞서다가殉節한 충신, 효자, 열녀 등을 대거 증보하였다. 〈표 1〉 관련 항목에서 볼 수 있듯이 충신, 효자, 열녀 등이 대폭 증보된 것은 이 때문이었다. 그것은 전술한 대로 국가 차원에서 이들의 순절을 높이 기려 향촌 교화의 근간으로 삼고자 했음을 보여준다. 특히 이 조항에 수록되는 것은 고을과 국가 차원에서 등재된다는 의미에서 전사 장소, 순절 사정 등이 상세하게 수록되어 있으며 旌閭 표창이 내려온 경우는 반드시 기재되었다.⁸⁵⁾

열두번째, 社廟에서는 『승람』의 경우, 사직단, 문묘, 성황사, 여단과 각종 산신사 등이 보이는 데 반해 『여지도서』의 경우, 山神祠가 대거 누락되고 書院이 추가되었다. 그리하여 〈표 1〉 관련 항목에서 볼 수 있듯이 증보가 많았고 후술하는 바와 같이 산천신앙이 淪祀로 배격되는 가운데 서원 제사가 주류가 되었기 때문이다.⁸⁶⁾ 또한 고산현 풍속 항목에서 잘 드러나고 있듯이 『승람』에서는 “邪神에 제사하기를 좋아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데 반해 『여지도서』에서는 유교국가의 정상적인

82) 『신증동국여지승람』, 전라도 함평 : 『여지도서』, 전라도 함평.

83) 변주승, 앞의 논문, 447-452면.

84) 『신증동국여지승람』, 전라도 나주 : 『여지도서』, 전라도 나주.

85) 변주승, 앞의 논문, 447-452면.

86) 이옥, 2009 『조선시대 재난과 국가의례』, 창비 : 김덕진, 2013 「전라도 광주 무등산의 神祠와 天祭壇」, 『역사학연구』 49, 137면.

풍속이라 할 “농사일과 누에치는 일에 힘쓴다.”라고 기재되어 있다.⁸⁷⁾

열세번째, 題詠에서는 『승람』과 『여지도서』의 결정적인 차이가 <표 1>에서 볼 수 있듯이 수록 여부이다. 전자는 반드시 수록된 데 반해 후자는 거의 없다.

그 밖에 기우제 관련 장소는 흥덕에서 볼 수 있듯이 『승람』에서는 자주 보이는 데 반해 『여지도서』에서는 잘 보이지 않는다.⁸⁸⁾ 조선후기 祭儀의 儒教化와 灌溉技術의 발달에 따라 기우제 장소에 대한 관심이 떨어진 것으로 보인다.

4. 邑史 資料로써의 활용 가능성

『승람』과 『여지도서』는 전술한 바와 같이 산천, 형승은 물론 각 고을의 건치 연혁, 인물의 활동, 건물의 내력, 종교·문화 시설의 실태, 문학작품·가요의 내력 등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어 지방의 역사와 문화를 기술하는 데 매우 요긴한 자료이다.⁸⁹⁾ 그러나 정작 이들 여지류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들 여지류에 수록된 기사의 신뢰도를 비롯한 여러 문제를 고민하면서 어떤 기사를 추출하여 여타 자료와 어떻게 연계할 것인가에 관해서도 고민할 일이다.

우선 이들 여지류는 해당 지역의 중요 인물을 소상하게 담고 있어 인물 개개인에 대한 연구와 함께 지방세력의 활동과 기반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한다.

『승람』 흥양현 건치연혁 항목을 보면 다음과 같다.

본래 長興府 高伊部曲[고이는 方言으로 猫다.]인데, 고려 忠烈王 11년에 이곳 사람 柳庇[뒤에 清臣이라고 이름을 고쳤다.]가 通譯으로 元에 가서 공이 있었기 때문에 高興으로 이름을 고치고 縣으로 승격시키고 監務를 두었다.⁹⁰⁾

87) 『신증동국여지승람』, 전라도 고산 : 『여지도서』, 전라도 고산.

88) 『신증동국여지승람』, 전라도 흥덕 : 『여지도서』, 전라도 흥덕.

89) 장동표, 앞의 논문.

90) 『신증동국여지승람』, 전라도 흥양, 건치연혁 항목.

이어서 고적 항목을 보면 다음과 같다.

高興廢縣 이는 곧 猫部曲이니 현의 동쪽 15리에 있다. 고려 때에 고이부곡 사람이 조정에 벼슬하면 나라가 망한다는 참설이 있었다. 柳庇가 고이부곡 部曲吏으로서 높은 벼슬에 올라 忠肅王을 따라 元에 가서 潘王 爺가 왕위를 엿보는 것을 보고 드디어 조유(曹頤)와 함께 왕을 배반하고 고에게 붙어 여러 가지로 흥계를 꾸몄다. 또 吳潛과 더불어 都省에 글을 올려 고려를 중국의 省으로 만들어 內地와 같이 하기를 청했다.⁹¹⁾

이 두 기사를 통해 흥양 출신 유비가 이곳 고이 부곡리였다가 훗날 간신이 되어 立省論을 주장한 인물로 기술되어 있다. 즉 그는 충선왕 측에 서서 충숙왕과 대립하면서 충숙왕 측으로부터 비난을 받았다. 이는 『고려사』 열전 奸臣傳에 실린 내용을 그대로 인용한 것으로 조선 초기 사관들의 정치적 편향이 반영된 것이다.⁹²⁾ 그러나 1899년 『신증흥양지』를 보면 유청신이 충의조에 실려 있다.⁹³⁾ 왜냐하면 이색의 『목은집』에 입각하여 그의 생애를 정리하면서 그에 대한 평가가 바뀌었기 때문이다.

나아가 이들 여지류는 해당 고을 출신 인물의 사회적 · 문화적 기반을 해명하는데도 도움을 준다. 예컨대 순천을 본향으로 삼고 있는 견훤의 사위 朴英規에 관한 기술 내용이다. 『승람』 순천도호부 인물 항목 기술은 다음과 같다.

고려 朴英規 後百濟의 임금 견훤의 사위이다. 견훤의 아들 神劍이 견훤을 金山寺에 가두자 견훤은 도망해서 錦城으로 달아나니, 太祖는 그를 맞아 높여서 尚父로 삼았다. 이에 영규는 가만히 그의 아내에게 말하기를, “烈女는 두 남편을 다시 섬기지 않고 충신은 두 임금을 섬기지 않는 법이라.” 하고, 드디어 사람을 보내 태조에게 고하기를, “왕께서 만일 義旗를 드시면, 청하건대 內應을 하겠습니다.” 하였다. 태조가 크게 기뻐하여 그 使者에게 후히 물건을 주어 돌려보냈다. 그 뒤에 신검을 배자 태조는 영규에게 이르기를, “임금이 이미 나라를 잃었는데 경의 내외가 홀로 그 아비에게 정성을 다

91) 『신증동국여지승람』, 전라도 흥양, 고적 항목.

92) 李範稷, 2002 「원 간섭기 立省論과 柳清臣」, 『歷史教育』 81.

93) “太祖李年 有夢見之異 特賜祭 復其舊職 而錄用子孫 前日譜者 剖棺斬屍 由是清臣之名 復振於國中 謂英密”(『新增興陽誌』(奎 10804)).

하고 겹하여 아름다운 공을 내게로 돌려보냈으니, 그 의리를 잊을 수 없도다.” 하고, 인하여 左丞 벼슬을 주고 그의 두 아들도 벼슬을 시켰다. 죽어서 海龍山神이 되었다.⁹⁴⁾

이러한 기술 내용은 『고려사』 열전과 『고려사절요』에 근간하였다는 점에서 주목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 유의해야 할 점은 그가 海龍山神이 되었다는 전설이다. 특히 사묘 항목에 해룡신사를 기재하고 있다는 점, 또 고적 항목에 해룡창이 해룡산성이라 불리는 土城과 관련되고 세금을 받아서 운반하던 곳이라는 점에서 박영규와 그의 사회적·경제적·문화적 기반을 해명할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하고 있다. 당시 土姓을 비롯한 지방 주요 세력이 후삼국통일전쟁기에 자신의 기반을 활용하여 전쟁에 참가했을뿐더러 이후에도 재지세력으로서 산신 신앙을 주도하면서 자신의 재지 기반을 재생산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⁹⁵⁾ 이러한 산사 관련 기술 내용은 여타 도의 고을에서도 보인다.

나아가 이러한 산신 신앙에 관한 기술 내용이 『여지도서』에서 대거 탈락됨으로써 조선 전기 향촌사회의 기층 문화가 후기에 들어와 주자학의 토착화와 함께 점차 변화하고 있을뿐더러 이러한 토착세력이 중앙집권화 추세에 밀려 약화되고 있음을 추론할 수 있다.

한편, 『승람』에 보이지 않는 神異 기사가 『여지도서』에 처음 등장하여 인물사 연구를 좀더 풍부하게 할 수 있다. 예컨대 『여지도서』 화순 고적 항목에서 고려 진각국사 天禧에 관한 기술 내용이 다음과 같다.

鶴棲島在縣西十里 四野中小培塿也 謢傳 褒鄉吏之女兒 冬月汲水于蒜山北隅大井 有二青瓜 浮于井 取而食之 因以有娠 彌月生子 其父母以爲無人道 而生棄于此島 有鶴覆翼之其母異之 復收而養之 是爲真覺國師 鶴棲之稱以此云⁹⁶⁾

94) 『신증동국여지승람』, 전라도 순천, 인물 항목.

95) 산신 신앙과 지역 사회의 관계에 관해서는 김갑동, 2001 「고려시대 나주의 지방세력과 그 동향」, 『한국중세사연구』 11 : 변동명, 2002 『한국 중세의 지역사회연구』, 학연문화사 : 변동명, 2013, 『한국 전통시기의 산신 · 성황신과 지역사회』, 전남대학교출판부 참조.

96) 『여지도서』, 전라도 화순 고적 항목.

이 기사는 훗날 1899년 상송되는 『화순군읍지』에는 보이지만 『여지승람』과 정사에는 보이지 않는 기사이다.⁹⁷⁾ 이를 화순의 주요 세력인 배씨와 관련되어 만들어진 전설이라는 점에서 배씨의 정치사회적 기반을 엿볼 수 있으리라 본다. 그러나 최연식은 『홍해읍지』에 근거하여 진각국사의 출생지를 경상도 홍해(경주)로 추정하고 있다.⁹⁸⁾ 왜 홍해 출신 진각국사 탄생 이야기가 화순 학서도에 들어갔는지 추적할 일이다. 이 곳 역시 『세종실록지리지』에 따르면 홍해와 마찬가지로 아버지 배씨와 어머니 최씨가 토성이다.⁹⁹⁾ 그리고 『여지승람』에는 기재되어 있지 않다가 왜 영조 시기에 와서야 기입되었는지도 해명해야 할 일이다. 조선 전기에는 화순 고을에서 神異記事를 배제했다가 영조 연간에 들어와 이런 기사를 증보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화순의 지역 사회 사정과 정부의 방침을 좀더 구체적으로 파악해야 그 이유를 해명할 수 있을 듯하다.

성황사의 경우도 마찬가지여서 『승람』과 『여지도서』의 기술 내용에 대한 정밀한 분석을 통해 지방의 기층 신앙 문화를 해명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¹⁰⁰⁾ 특히 정약용이 『목민심서』에서 성황신앙 등 淫祀를 배격하는 수령들의 고사를 다음과 같이 소개하면서 수령의 주된 역할이 儒教的 祭儀의 시행임을 강조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丁彥璜이 安東府使가 되었다. 안동에서는 고려 때부터 新羅公主烏金簪神을 받드는데 그 신이 매우 영험하고 괴이한 일이 많아 사람들이 공경하여 믿었다. 省庵 金孝元이 안동 부사로 있을 적에 그 사당을 태워버렸으나 그 뒤에 吏民들이 다시 사당을 세우고 매년 端午節이 되면 무당과 광대 수십 명이 그 신을 모시고 관리가 그 뒤를 따르며 온 고을을 두루 돌아다니는데 이것을 일러 端午使라 하였다. 백성들은 뒤질세라 이 행렬의 뒤를 따라 다니면서 破產 · 失業을 하고서도 후회할 줄을 몰랐다. 안동을 거쳐간 많

97) 『화순군읍지』(奎 10779, 1899).

98) 최연식, 2013 「眞覺國師 千熙의 生涯와 思想」, 『문화사학』 39.

99) 『세종실록』 권151, 지리지, 전라도 화순현.

100) 이기태, 1999 「성황사의 지역사회 이념의 통합-조선 중·후기 순창군의 사례를 중심으로」, 『역사민속학』 8 : 유영숙, 2002 「조선시대 향촌사회의 질서변동과 성황사」, 『강원 문화사연구』 7.

은 府使들이 능히 금하지 못했던 것을 정언황이 儒林들을 모아 놓고 그 괴상한 복장을 태워버리니 그 요사한 짓거리가 마침내 없어졌다.¹⁰¹⁾

부사 정언황 이전에는 안동에서 재래의 新羅公主烏金簪神 祭儀가 널리 시행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 여지류를 통해 읍성의 이전·축조 과정을 재구성할 수 있다. 예컨대 『승람』 영광군 궁실 항목의 기술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객관 신숙주의 기문에, “군이 여러 번 왜구의 난을 당하여 공관이 쓸쓸하다. 예전에는 읍의 남쪽 산기슭에 있었다는데 그 산수가 등지어 가고 지리가 불순한데, 더욱이 성보(城堡 망보는 작은 성)는 낮고 무너지고 공관은 비좁기 때문에, 임신년에 읍 사람들이 사유를 조정에 아뢰어 성을 牛臥山의 동쪽으로 옮기니, 험준하고 견고하며 넓고 평坦하며 주위가 넓게 트여서, 안에 관사와 창고, 미곡창고를 세울 만했다. 그해 가을부터 짓기 시작했는데, 李·鄭 두 군수를 겪었어도 오히려 진척이 없었다. 병자년 봄에 이르러 지금 군수 驪興 閔孝源 공이 뒤를 이어 군수가 되어 앞 사람이 아직 세우지 못한 것을 세우고 앞 사람이 끝내지 못한 것을 끝내어, 문과 창을 내고 단청을 환하게 하니, 군 사람이 모두 경축하였다.” 하였다.¹⁰²⁾

이에 따르면 영광읍성은 신숙주가 기문을 쓰기 이전에는 읍의 남쪽 기슭에 있다가 단종 2년(1452)에 우와산 동쪽으로 옮겨 축성하고 각종 건물을 지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러한 기사는 신숙주의 문집 『保閑齋集』에 수록되어 있지 않다. 더욱이 이후 영광읍지에도 보이지 않는다.

또한 기문을 통해 고을 관아의 건물 내력과 건축 공간 구조를 확인할 수 있다. 즉 『승람』은 위치만 알려주는 『여지도서』와 달리 일부 고을의 궁실을 기술하면서 기존의 기문을 통해 건물 내력과 함께 건축 공간 구조를 상세하게 알려주고 있다. 예컨대 『승람』 궁실 항목은 다음과 같다.

101) 『牧民心書』, 禮典, 祭祀.

102) 『신증동국여지승람』, 전라도 영광, 궁실 항목.

객관 정곤의 기에, “태인현은 곧 옛날의 태산과 인의 두 고을인데, 우리 조정에서 두 고을의 이름을 아울러서 태인이라 하였다. 읍내는 옛날 태산의 동쪽 구석에 치우쳐 있었기 때문에, 인의의 백성들이 왕래하는데 병통으로 여겼다. 병신년 가을 8월에 현감 黃敬敷이 두 고을의 중간 지점인 거산역 옛 객관을 현의 객관으로 삼았으나, 너무 좁고 누추하였다. 무술년 겨울에 吳致善이 이어 와서 드디어 옛 객관의 서쪽에 지세를 살피고, 기해년 가을에 비로소 後廳·東西寢·南廳·東西行廊을 세우니, 모두 몇 칸이다. 신축년 여름에 安起가 吳公의 뜻을 이어받아 左右廊·좌우마구[左右廡]·대문·庫屋·향교·聖殿을 더 세우니, 모두 몇 칸이다.” 하였다.¹⁰³⁾

이는 조선 시기에 들어와 중앙집권화가 이전 시기에 비해 점차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기사와 연결된다. 예컨대 『승람』 함평현 누정 항목에 실린 정인지의 기문은 이를 잘 보여준다.

觀政樓 鄭麟趾의 기문에, “누관을 짓는 것이 정치하는 데에 무슨 관계가 있으랴마는 국가가 다스려지고 문란한 자취나 고을이 창성하고 쇠퇴한 유래를 여기에서 엿볼 수 있다. … 우리 국가는 밝은 임금과 어진 신하가 서로 만나서 안팎이 태평한 지 50년이 넘었다. 여러 고을의 수령은 모두 그 선발하여 임명함을 잘하였다. 더욱 함평은 바다 곁에 있고 토지가 비옥하다. 바다 곁에 있으므로 경비가 해이하지 않고, 토지가 비옥하므로 백성이 많으니, 반드시 문무를 겸비한 인재라야 비로소 수령이 될 수 있는데, 오늘날에 있어서는 金季甫가 바로 그 사람이다. 부임한 지 1년 만에 아전에게 위엄이 행해지고 백성에게 은혜가 더해지고 七事는 여러 고을 중에 으뜸이어서 일을 처리하고 사람에게 응접하는 것이 넉넉하고 여유가 있었다. 이윽고 마음속으로 생각하기를, ‘누각과 연못은 다만 놀고 구경하는 것일 뿐 아니라 번거로운 걱정을 씻고 성정을 즐겁게 하여, 침울함을 물리치고 시원함을 맞아들일 수 있는 것인데, 이 고을에는 그것이 없으니, 어찌 使命을 존경하여 접대하는 데에 하나의 결함이 되지 않으랴.’ 하고, 곧 일이 없는 중들을 모아 재목을 벌채하고 기와를 굽고 객사 동쪽에 터를 잡아 계해년 정월에 일을 시작하여 몇 달이 지나서 낙성했다. 갑자년 여름에 단청하였는데, 사치하지도 누추하지도 않았으며, 재물은 관가에서 나오지 않았고 역사는 백성에게 미치지 않았는데, 발돋움한 듯이 높이 솟고, 새가 나는 듯이 펴졌으니, 고을 사람들이 보고 놀라며 신기하다고 하였다. 또 그 곁에 못을 파고 연을 심었는데 넓이가 두어畝나 되니, 또한 한 누각의 좋은 경치이다. 아아, 김군이 정치할 줄 아는 사람이로다.”

103) 『신증동국여지승람』, 전라도 태인, 궁실 항목.

정인지의 기문에 과장과 미화가 곁들어 있으나 수령 7사가 본격적으로 적용되면서 수령이 토착세력과 승려 등 제반 지방 세력을 장악해 갔음을 추론할 수 있다. 아울러 여지류에서 해당 지역의 경제 사정을 추론할 단서를 찾을 수 있다. 『승람』 영광 불우 항목을 보면 다음과 같다.

資福寺 佛德山에 있다. ○ 고려 尹汝衡의 시에, “東林의 절은 郡城의 동쪽에 있는데, 외로운 나그네 여기 머물렀네. 하도 많은 나그네 설움 벼들개지처럼 분분한데, 10년 밭 자취는 쑥대처럼 어지러웠구나. 구름은 어두운 빛 머금어 바위 옆 나무에 깔렸고, 비는 가을 소리 알리며 우물 곁 오동나무 두드리네. 곳곳에 서역의 상인은 무슨 일로 머물렀던가, 흐르는 세월에 귀밑머리 희고 노자는 떨어졌구나.” 하였다.¹⁰⁴⁾

이에 따르면 고려 시기 서역의 상인이 영광의 자복사 등지에 머물렀음을 확인할 수 있다. 비록 이러한 기문이 직접적 증거가 될 수 없으나 관련 자료에서 기사를 찾을 때 단서를 제공한다 하겠다. 또한 『승람』 영광 고적 항목에 따르면 중종 19년(1524) 전라도 관찰사 이사군이 영광 마접고개에 사창을 설치했음을 기록하고 있다. 이 기사는 실록에 보이지 않는다.

다음 전쟁, 외교 등에 대한 지역사 서술에 단서를 제공한다. 예컨대 『여지도서』에 들어 있지 않지만 이 즈음에 편찬된 『임피읍지』 고적 항목에 오성산 설화를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五聖山 邑誌有曰 唐將蘇定方伐百濟時 住兵于此山下 黃霧四塞 迷不知路 忽有五老人來到陣前 定方問路 老人曰 汝欲伐吾國 何爲指路乎 定方恕五老而去 班師之日 悔以爲神人 葬于此山 仍名五聖山 云山之上峰 今有五聖基¹⁰⁵⁾

이러한 전설은 5노인이 백제 군대를 상징화한 것이며 이들 군대가 여기서 당나라 군대와 싸우다가 전사하였음을 보여주는 전설로 비친다.¹⁰⁶⁾

반면에 『여지승람』 옥구 佛宇 항목에는 다음과 같은 기술이 보인다.

104) 『신증동국여지승람』, 전라도 영광, 불우 항목.

105) 국사편찬위원회 편, 1973 『여지도서』 보유편, 전라도 임피, 고적 항목.

106) 박영철, 2017 『군산과 동아시아-황해남로 흥망사-』, 민속원, 76면.

千房寺 千房山에 있고, 李膺挺의 重修記가 있다. 전하는 밀에 신라 金庾信 장군이 백제를 치려고 唐나라에 군대를 요청하였는데, 당나라에서는 蘇定方을 시켜 배로 군사 12만 명을 거느리고 천방산 아래에 정박하게 하였다. 그런데 안개가 자욱하게 덮여 천지가 깁깝하였다. 김유신이 산신령한테 기도하기를, “만일 안개를 활짝 개게 해 주시면 마땅히 절 1천 채를 세워 부처님을 만들겠습니다.” 하니, 그날로 천지가 맑고 밝아졌다. 그리하여 산에 올라 두루 살펴보니, 지세가 너무 협착하여 절 천 채를 도저히 세울 수 없으므로, 다만 돌 1천 개를 배치하여 절의 형태만 만들고, 절 한 채를 세워 천방사라고 부르다가 후에 禪林寺라 고쳐 불렀다.¹⁰⁷⁾

이 기사는 임피의 경우와 달리 옥구 지방 세력이 처음에는 저항하려다가 김유신의 희유책에 넘어가 나당 연합군을 도와 백제를 멸망시키는 데 주도하였음을 보여주는 전설이 아닌가 한다.

또한 자료가 매우 부족한 섬의 역사를 연구하는 데 이들 여지류는 유용하다. 예컨대 위화도의 역사를 연구할 때 『의주부읍지』는 매우 긴요하다. 이에 따르면 “땅이 매우 비옥하여 농사짓는 백성이 많았는데, 天順 5년(1461)에 우리 농민이 野人에게 피납당한 일이 있어 이때부터 官에서 농사짓는 것을 금했다.”라고 되어 있다. 이는 흔히들 위화도가 오래 버려진 땅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교정하는 데 매우 긴요한 전거인 셈이다. 그리하여 『의주부읍지』는 정조 22년(1798) 위화도를 개척하는데 주요 근거가 되었으며 오늘날 위화도의 내력을 연구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¹⁰⁸⁾

끝으로 재래의 지방 가요를 발굴할 수 있다. 예컨대 고창에서 내려오는 방등산가는 주목해야 할 가사이다. 『승람』의 전라도 고창현 산천 항목을 보면 다음과 같다.

半登山 현의 동쪽 5리에 있는 진산이다. 신라 말기에 도적이 크게 일어나 이 산에 응거하여 양가의 자녀가 많이 잡혀갔다. 長日縣의 아낙이 그 가운데 있었는데 노래를 지어, 그 지아비가 곧 와서 구해주지 않는 것을 풍자하였다. 곡명을 方等山이라고 일컫는데, 방등이라는 말이 바뀌어 반등이 되었다. 장일현은 곧 長城인 듯하다.¹⁰⁹⁾

107) 『신증동국여지승람』, 전라도 옥구, 佛宇 항목.

108) 『정조실록』 권48, 정조 22년 1월 경진.

109) 『신증동국여지승람』, 전라도 고창, 산천 항목.

방등산곡이라는 노래가 반등산이라는 산을 소개하면서 같이 구전되었음을 보여 준다.¹¹⁰⁾ 물론 이러한 노래 이야기가 『승람』에서 처음 소개되는 것은 아니다. 『고려사』 권71 樂志 삼국속악조에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方等山은 羅州의 屬縣인 長城의 경내에 있다. 신라 말에 도적이 크게 일어나서 이 산에 근거를 두고 있었으니 양가(良家)의 자녀들이 많이 잡혀갔다. 長日縣의 여자도 그 가운데 있었는데, 이 노래를 지어 자기 남편이 바로 와서 구출하지 않음을 풍자하였다.¹¹¹⁾

『승람』 기사를 이 기사와 비교할 때 『승람』의 기사가 『고려사』 기사에 근거하여 기술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고려사』 기사는 방등산을 나주 경내에 있다고 기술하였으나 『승람』 기사는 전라도 고창현에 소재함을 알 수 있을뿐더 그 산이 반등산과 관련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장소와 노래의 기원이 연결된 셈이다.

나아가 19세기 중엽 이유원은 방등산곡의 가사 내용을 찾아 자신의 저서 『임하필기』의 海東樂府에서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다.

半登山曲

방등산이 반등산으로 전해졌는데 / 方登山語半登傳
 長日縣의 여인 그 낭군을 풍자했네 / 日縣婆娘刺所天
 적막한 물가 남편의 구원 손길 끊기니 / 寂寢水厓來救絕
 나무뿌리 베고 외로이 누워 잠 못 이룬다 / 枕根孤臥不成眠¹¹²⁾

반등산곡의 연원과 그 사연, 그리고 장소를 여기서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승람』이 현지 수령의 보고에 근거하여 편찬되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고

110) 趙載勳, 1992 「方等山歌 研究」, 『百濟論叢』 3.

111) 『高麗史』 권71, 樂志, 三國俗樂, “方等山 在羅州屬縣長城之境 新羅末 盜賊大起 據此山 良家子女多被擄掠 長日縣之女 亦在其中 作此歌 以諷其夫 不即來救也”

112) 『林下筆記』 권38, 海東樂府.

려사』 기사보다 신빙성이 높을 수 있음을 추론할 수 있다. 선운산곡도 마찬가지이다.¹¹³⁾ 『승람』과 『여지도서』에 실린 각종 문학작품과 노래를 통해 현전하지 않는 작품을 발굴하는 데 실마리를 제공한다 하겠다.

그러나 이들 여지류 기사에 대한 정밀한 사료 비판이 수반되어야 한다. 예컨대 『승람』 흥양현 누정 항목에 따르면 흥양현 수령 洪益生이 세종 27년(1445) 治所를 물길 때문에 성 서쪽 터로 옮겼다고 했으나 『여지도서』에는 없다.¹¹⁴⁾ 그러나 이후 1759년 경 편찬된 『흥양지』 공해조에는 衙舍가 예전에는 성내 서쪽 지금은 성내 동쪽으로 기술하고 있다.¹¹⁵⁾ 따라서 여지류 사이의 상호 대조와 심층적인 내적 비판이 반드시 수반되어야만 기술 내용의 오류를 바로 잡고 그 맥락적 의미를 파악할 수 있겠다.

5. 맺음말

지방사연구가 근래 활성화되면서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그것은 지방자치제의 발전과 연구자들의 질적·양적 성장에서 비롯되었다. 그러나 자료의 절대적인 부족으로 인해 전근대 지방사연구는 근현대 지방사연구에 비해 많은 장벽에 부딪히고 있다. 따라서 전근대 지방사연구를 진척시키기 위해서는 고문서 및 문집의 발굴 및 활용에 그치지 않고 읍지를 비롯한 각종 輿地類 자료들의 가치를 제고하고 그 내용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이 점에서 조선시대 읍지의 집합체라 할 『新增東國輿地勝覽』과 『輿地圖書』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이들 자료가 중앙의 주도 아래 편찬되었지만 그 기저가 개별 고을의 역사와 지지를 바탕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이들 자

113) 조재훈, 1980 「선운산가 소고」, 『百濟文化』 13.

114) 치소성 이동에 관해서는 최종석, 2005 「조선 초기 城隍祠의 立地와 治所」, 『동방학지』 131 참조.

115) 『興陽誌』(상백고 915.14-H483), 공해조.

료가 편찬 시기, 동기와 방향 등이 다소 상이하지만 이들 자료의 특징을 상호 비교·검토하는 작업은 읍지의 역사적 가치를 제고할뿐더러 활용 폭을 넓힐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

『新增東國輿地勝覽』과 『輿地圖書』는 제목에서 드러나고 있듯이 전자는 記文·題詠 등을 여타 항목과 함께 유의한 반면에 후자는 『세종실록지리지』를 전범으로 삼아 통치자료[治道] 차원에서 方里, 賦稅 堤堰을 비롯한 각종 정보 항목에 유의하였다. 이에 전자는 문화 기술에 치우쳤음에도 불구하고 기문과 제영을 통해 고을의 내력, 건물의 배치와 규모, 고을 재지세력의 활동 및 기층 문화의 제반 사정 등은 고을의 역사 즉 邑史를 풍부하게 서술하는 데 도움이 될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 있는 반면에 후자는 국가의 통치 필요상 중앙의 관심사를 투영한 제반 정보의 종합여지 편찬에 초점을 둔 나머지 전자에 비해 고을 자체의 재래적인 이런 내력과 사정들을 덜 담고 있다. 다만 『여지도서』 경상도의 경우에서 볼 수 있듯이 지방 사족과 중앙의 길항 관계에 따라 제영과 기문이 포함된 까닭에 읍사가 좀더 풍부해 질 여지가 있다. 따라서 『신증동국여지승람』과 『여지도서』의 이러한 相補的 인 關係를 인식하여 교차적으로 검토하고 정밀하게 비교 분석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여지류 활용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여지류 사이의 체제를 비교하는 外的 批判을 넘어 수록 내용의 典據에 대한 검증, 자료의 신뢰성 검토, 脈絡의 意味에 대한 이해 등 內的 批判을 통해 여지류 자체를 전면 검토하고 활용 방안을 강구하는 등 후속작업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그럼으로써 이들 여지류는 지방인 물사는 물론 지방사회의 변동을 비롯하여 기층문화의 특징 등을 해명하는 데 유용한 자료로 거듭날 것이다. 물론 여기에는 개별 읍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결국 이러한 작업은 여지류 전반에 대한 계통적인 분류 작업과 함께 내용의 시기별 변화에 대한 시계별 분석 작업이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한다. 물론 이러한 작업이 궁극적으로는 읍사 즉 고을의 역사를 서술하기 위한 기초 자료의 구축임은 말할 나위도 없다.

논문투고일(2017. 11. 10),	심사일(2017. 11. 20),	제재확정일(2017. 12. 11)
----------------------	--------------------	---------------------

참고문헌

- 고영진, 1998 「조선 중기 鄕禮에 대한 인식의 변화」, 『국사관논총』 81, 국사편찬위원회.
- 김갑동, 2001 「고려시대 나주의 지방세력과 그 동향」, 『한국중세사연구』 11, 한국중세사학회.
- 김건곤 외, 2014 『동국여지승람제영사전 제영편』,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 _____, 2016 『동국여지승람제영사전 산천편』,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 김기립, 2003 「서거정 記文에 대한 서술전략 고찰」, 『한국고전연구』 9, 한국고전연구학회.
- 김덕진, 2013 「전라도 광주 무등산의 神祠와 天祭壇」, 『역사학연구』 49, 호남사학회.
- 김동국, 1995 「조선전기 지방도시 내 누정의 형성과정과 건축특성」, 『경기대학교 논문집』 37, 경기대학교.
- 김우철, 2006 「『여지도서』·‘성씨’조의 검토」, 『한국사학보』 25, 고려사학회.
- _____, 2010 「『여지도서』를 통해 본 조선후기 전라도의 改貫 실태」, 『전북사학』 37, 전북사학회.
- 김은미, 1990 「조선초기 누정기의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태웅, 2008 「해방 이후 지방지 편찬의 추이와 시기별 특징」, 『한국 민중사의 새로운 모색과 역사쓰기』(역사학연구소 역음), 선인.
- 김현룡, 1984 「동국여지승람의 설화 연구」, 『인문과학논총』 16, 건국대학교 인문학연구원.
- 杜維運(權重達譯), 1984 『增補新版 歷史學研究方法論』, 一潮閣.
- 역사연구소 고대 및 중세사연구실, 1959 「자료 : 『신증동국여지승람』에 수록된 쌍물 일람표」, 『역사과학』 1660001.
- 문용식, 2006 「『여지도서』를 통해 본 18세기 조선의 환곡 운영 실태」, 『한국사학보』 25, 고려사학회.
- 박성수, 1977 『역사학개론』, 삼영사.
- 박영철, 2017 『군산과 동아시아-황해남로 흥망사-』, 민속원.
- 박종기, 2000 「朝鮮初期의 部曲」, 『국사관논총』 92, 국사편찬위원회.
- 배우성, 1998 「조선후기 국토관과 천하관의 변화」, 일지사.
- 변동명, 2002 『한국 중세의 지역사회연구』, 학연문화사.
- _____, 2013 『한국 전통시기의 산신 · 성황신과 지역사회』, 전남대학교출판부.
- 변주승, 2006 「『여지도서』의 성격과 道別 특성」, 『한국사학보』 25, 고려사학회.
- 서인원, 2002 「조선초기 지리지 연구-『동국여지승람』을 중심으로」, 혜안.

- 서종태, 2006 「『여지도서』의 물산 조항연구」, 『한국사학보』 25, 고려사학회.
- 소순규, 2014 「『신증동국여지승람』 토산 항목의 구성과 특징」, 『동방학지』 165,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 양보경, 1987 「조선시대 읍지의 성격과 지리적 인식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지리학과.
- 양진석, 2013 「18세기 말 전국 지리지 『해동여지통재』의 추적」, 『규장각』 43,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 유영숙, 2002 「조선시대 향촌사회의 질서변동과 성황사」, 『강원문화사연구』 7, 강원향토문화연구회.
- 유재춘, 1996 「조선전기 성곽 연구-『신증동국여지승람』의 기록을 중심으로」, 『군사』 33,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 윤경진, 2012 「고려사 지리지의 분석과 보정」, 여유당.
- 이강근, 1989 「『동국여지승람』과 조선전기까지의 건축(1)」, 『강좌미술사』 2, 한국불교미술사학회.
- 이기봉, 2003 「조선시대 전국지리지의 생산적 항목에 대한 검토」, 『문화역사자리』 21, 한국문화역사자리학회.
- 이기태, 1999 「성황사의 지역사회 이념의 통합-조선 중·후기 순창군의 사례를 중심으로」, 『역사민속학』 8, 한국역사민속학회.
- 李範稷, 2002 「원 간섭기 立省論과 柳清臣」, 『歷史教育』 81, 역사교육연구회.
- 이상식, 2006 「『여지도서』를 통해 본 지방행정 체계의 구성 및 운영원리 - 충청도 지역을 중심으로-」, 『한국사학보』 25, 고려사학회.
- 이수건, 1971 「朝鮮初期 郡縣制 整備에 대하여」, 『영남사학』 1, 영남대학교 사학과.
- 이 육, 2009 「조선시대 재난과 국가의례」, 창비.
- 이재우, 2015 「『신증동국여지승람』에 반영된 효 인식」, 『영남학』 28,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 _____, 2017 「『현산지』에 실린 『여지도서』의 목차와 편찬 규정」, 『영남학』 60,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 이철성, 2006 「『여지도서』에 나타난 전결세 항목의 텍스트적 이해」, 『한국사학보』 25, 고려사학회.
- 이태진, 1976 「15세기 후반기의 「鉅族」과 名族意識-『동국여지승람』 인물조의 분석을 통하여」, 『한국사론』 3,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국사학과.
- _____, 1979 「『동국여지승람』 편찬의 역사적 성격」, 『진단학보』 46, 진단학회.
- 장동표, 2008 「읍지와 지도를 통한 지방사 이해」, 『지방사연구입문』(역사문화학회 역음), 민속원.

- 전형택, 1981 「『동국여지승람』 전라도 인물조의 분석을 통해 본 조선초기 지배세력」, 『역사학연구』 10, 호남사학회.
- 정구복, 2008 「『문헌비고』의 자료적 성격과 사학사적 의미」, 『진단학보』 106, 진단학회.
- 정요근, 2016 「고려시대 鄉·部曲의 성격 재검토 - 下三道의 향·부곡 주요 밀집 분포 지역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 『사학연구』 124, 한국사학회.
- 정재영, 2016 「영조연간 전국지리지 『여지도서』의 서지적 연구」, 『서지학연구』 68, 서지학회.
- 조재훈, 1980 「선운산가 소고」, 『百濟文化』 13, 공주대학교 백제문화연구소.
- 趙載勳, 1992 「方等山歌 研究」, 『百濟論叢』 3, 백제문화개발연구원.
- 倉修良, 1990 『方志學通論』, 齊魯書社.
- 최연식, 2013 「眞覺國師 千熙의 生涯와 思想」, 『문화사학』 39, 한국문화사학회.
- 최종석, 2005 「조선 초기 城隍祠의 立地와 治所」, 『동방학지』 131,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 허원영, 2011 「18세기 중엽 조선의 호구와 전결의 지역적 분포-『여지도서』의 호구 및 전결 기록 분석-」, 『사림』 38, 수선사학회.

Abstract

Comparison and Utilization of the Local Historical Sources in
Sinjeungdonggukyeojiseungram(新增東國輿地勝覽) and
Yeojidoseo(輿地圖書)
– Focused on the Jeolla-Do –

Kim, Tae Woong

While Sinjeungdonggukyeojiseungram(新增東國輿地勝覽) took notice of the writings and poems along with the others, Yeojidoseo(輿地圖書) was modeled after Geography Monograph of King Sejong(『世宗實錄地理志』), paying attention to the squares, taxes, dams, and other information items in the administrative documents. Despite its focus on cultural technology, the former is rich in providing historical data to help the local history, layout and size of its buildings, indigenous actions, and the general assessment of the base cultures, as can be seen in writings and poems. The latter, on the other hand, has less traditional history and circumstances of the region itself than the rest of the former, which focused on the compilation of information that reflected central interests on the need of the nation's governance.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review the code of geography class carefully and compare the former with the latter. As such, these items will serve as useful materials to explain the characteristics of the baseculture, including changes in the local community as well as local figures.

Key words : the Code of Geography Class, Town Chronicles, the Study of Local History, Writings, Lyrics